

(앞 표지 겉면)

RR 2019-수정판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

2019. 4. 15

운영자 : 김동욱

대 입 전 략

이 연구보고서는 대입전략 카페 운영자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앞 표지 안쪽면)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

목 차

들어가며	4
수정판을 내면서	6
고등학교의 마인드 혁신	7
Ⅰ. 학교생활기록부, 교육부 기재 방식 개선 사항	10
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양식	11
Ⅲ.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	15
Ⅳ. 자기소개서(Ⅰ)	30
Ⅴ. 자기소개서(Ⅱ)	47
Ⅵ. 자기소개서(Ⅲ)	73
Ⅶ.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징	84
Ⅷ. 내가 생각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법	86
Ⅸ.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법	94
X.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XI.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양식	103
전체 면	110

들어가며

2020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변화가 없지만 2019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교육부가 기재요령에 많은 변화를 준 학교생활기록부의 대학전형자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활동내역을 활동 후 즉시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17, 2018,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항목별 입력내용, 글자 수 축소 그리고 항목 축소로 이어져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변화에 대학들이 입학처(입학사정관실)를 중심으로 서류평가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들이 요구하는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과 관련된 평가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을 담은 자기소개서는 수업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적향상 일변도에서 수업활동과 지적호기심에 맞추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글감과 흐름의 변화를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게 되었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이 강조하고 있는 수업시간의 변화와 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과 서술형 항목의 연계 구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무엇을(What)’, ‘어떻게(How)’를 ‘왜(Why)’에 담아 나가야 하는 지르 정리하였다.

수업활동을 학생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교육부의 요구와 상위권 대학이 동의하여 수행평가가 많은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의 수업활동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고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지만 워낙 수준차가 심해 일부 인문계열 교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공정한 경쟁 체제를 갖추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부(교과, 종합)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차이, 자기소개서(추천서)의 첨삭 수준 비교에 의해 학생들은 교사와의 친밀도, 내신성적,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 등에 교사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 자신의 수업활동과 학교생활에서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반성, 변화, 충고를 수용해야 하며 교사들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수업활동과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사들은 학생들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은 권유가 아니라도 자기주도적으로 교내 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학생 활동의 중심은 학생회(학급회)가 주체라는 인식을 교사, 학생 모두 가져야 한다. 졸업생의 학업역량과 대학 전형별 입학실적을 보면 신입생의 미래가 예측 될 것이다.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는 전과목성적, 전공적합성 연계 과목성적, 수업활동과 교내활동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내용의 충실도가 다르고 활동과정과 결과가 다르다 해도 이미 되고 되어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기소개서(추천서)를 통해 미래를 향해 변신한 새로운 자신을 찾게 되었다.

20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할 2019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발표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 변화는 이를 적용받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수상경력보다 자율동아리 페이지가 모든 고등학교 학생에게 자신만의 강점을 드러낼 영역이 줄어들 것이다. 일반고 학생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정도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화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들이 평가 방향을 바꾼다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전공적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자신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8번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10번인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한층 중요해 질 것이다.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의 세 번째 수정(개정)판은 맞지 않거나 필요 없는 내용, 새로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 수정, 내용 추가, 기존 내용 삭제되어 [RR-2017]/[RR-2018]/[RR-2019]의 <목차>를 비교하여 읽기 바란다.

수정판을 내면서

- 대학 수시모집 전형 중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2017년도 초판 발간하였으며 이를 수정하여 2018년도 개정판을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대학들의 평가안의 미묘한 변화와 대학들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비중 및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도에 재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2020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전형의 서류평가에서 수험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추천서)에 답을 차별화, 남들보다 우수성을 입증할 소재입니다. 이 소재들은 학교 내 모든 구성원들이 내놓아야 할 의무와 동시에 권리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고등학교의 마인드 혁신

고등학교 구성원 모두의 마인드 혁신

-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대학 수시전형의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들이 고등학교 5개 학기 전체를 평가한 결과물로서 학생이 어떤 성과를 쌓았는지와 그것을 개인별 활동을 얼마나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시간(학기) 순으로 학생 모두에게 공통된 활동, 공통된 문장이 아닌 학생 개인별 활동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져 활동내용이 학생 수만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세부 내용에 할당된 글자 수를 교사들이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마다의 차이점은 공통된 내용과 일반적인 내용으로 글자 수를 채운 학교와 학생의 개인 활동으로 공통된 내용과 일반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학교의 차이점이 결과의 차이점과 대학 및 학과의 차이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고등학교마다 다릅니다. 1학기는 대학 수시모집을 위해 빠른 학교는 교사들이 학생관찰일지 또는 누가기록으로 기록하거나 아니면 본격적으로 6월부터 시작되지만 7월 기말고사 성적처리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 중순이후, 8월부터 9월 수시전형 원서접수 시작 전까지 입력이 됩니다. 2학기도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글자 수를 모두 채워야 대학들의 평가에서 우수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자율), 독서활동, 진로희망사항, 개인특성 및 종합란은 교사가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받습니다.
- 학생들의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활동이 없다면 의미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성실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학생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쓸 수 있는 내용물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인 장수를 중시합니다. 이것은 공개된 합격사례들이 학생의 결과물(실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글자 수에 의한 장수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물(실적)과 양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없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싫어하는 전형이지만 학생들의 대학 입학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가장 쉬운 전형입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프로그램은 교사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준비의 완성도도 높아야 하며 학부모의 뒷받침이 따라야하며 5개 학기 기간 내내 수능보다 힘이 부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학교 간 비교와 대학 입학실적

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와 평가 전에 혁신된 마인드로 고등학교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생성해 내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형식적이거나 무늬만 모방하거나 담당 교사만의 행정업무로 학생들만 참여하고 담당 교사 외 나머지 교사들은 관심 밖의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의 활동을 교사들은 결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과정들을 관찰한 일지의 메모와 학생과의 상담에 의해 최종 정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들에게 활동 내용을 적어오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에 맞춤형의 학교교육계획서와 교육과정을 짜서 실행해 나가면서 매년 평가 및 반성을 통해 수정과 보완을 통해 혁신해 가는 마인드를 갖추고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국제고 등 선도학교의 프로그램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수용하여 유사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의 학업역량에 의해 프로그램을 대하는 학생의 태도 및 참여비율,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진행과 과정과 결과물의 수준은 고등학교 수만큼 다양합니다.

- 동아리(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축제, 체육대회 등 학생활동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 자치활동으로 명사 초청 강연회, 전공 및 진로체험을 방문 또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교내에서 체험할 수 있으며 모든 활동들은 대학입시에서 평가되는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지게 됩니다. 수업시간의 활동과 실적들이 수상경력, 창의적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개인특성 및 종합의견에 세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맞춤형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해 교사들이 수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활동과정을 세세히 메모하는 것이야 말로 행사와 학생활동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머물게 되며 학생활동은 과정이 빠진 결과물의 나열에 불과한 학교생활기록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들 모두가 인지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고3 담임 수시 협의회가 있지만 대부분 계획서일 뿐입니다. 3학년 1학기 내내 머리를 맞대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적합할지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마다 학업역량(태도, 의지, 동기)에 의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이 매우 중요해 진 것이 현실입니다. 선행조건은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의해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고등학교를 베낀 고등학교들은 선도하는 고등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의 마인드까지 받아들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신입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와 대학입학실적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선도 고등학교 방문 또는 요청

컨설팅은 컨설팅일 뿐입니다. 컨설팅의 유효기간은 컨설팅 시간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끝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혁신보다는 마인드 혁신이 우선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의 혁신은 시스템의 혁신으로 고등학교의 변신은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해야 합니다.

-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할 수 있는 한 모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목표로 하는 대학, 학과, 진로와 상관이 없이 참여하는 동기를 스스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학들은 그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고,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반드시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 학과,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대학, 학과, 진로와 연결된 다양한 활동에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기주도적”이란 단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기주도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 학부모,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서 말하는 단어에 집착하여 “자기주도적”이란 단어가 많이 적는 것을 중요하게, 학생, 학부모들은 이 단어가 많은 것에 매우 만족해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내용은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과정(이유, 동기, 구체적 내용)이지 단어가 아닙니다.

- 학생은 매일 한 시간 켜 일 년 동안 일찍 등교하여 교실에 혼자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매우 우수함이 아니라 학생은 매일 한 시간 켜 일 년 동안 일찍 등교하여 교실에 혼자 공부하는 끈기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궁금한 내용 또는 개념을 확장하여 심화내용에 대하여 수업시간 또는 쉬는 시간, 점심 및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질문하면서 수행과제 보고서 및 발표 내용의 수준이 확연히 두드러짐을 느낄 수 있으며 개별 또는 조별과제에서 학급 친구들의 과제 수행에 영향력을 끼쳤으며 교내 행사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해 보여 주고 있음.(또는 우수한 성적을 일 년 내내 유지 또는 높은 성취도의 향상을 보여줌.) 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제3자의 생각에 “자기주도적”이란 단어가 새겨지게 됩니다.

- 자기주도학습은 혼자서 할 수도, 학원을 다니면서 할 수도, 부모님이나 친구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와 함께가 시기적, 내용적으로 혼합된 학습입니다. 내가 하는 공부의 중심은 나 자신이며 나 외의 요구가 아니라 나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 혼자 또는 함께 계획을 실천해 나가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부입니다. 나의 공부 영역에 부모, 학원, 선생님, 친구를 포함하는 것은 나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며 나의 동기부여의 결정성을 극대화 시키며 그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 자기주도적학습을 위한 선행 조건은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실천을 통해 목표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I.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 사항(2018.8.17. 교육부 보도자료)

2020~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 항목 서술식 입력 내용 작성 기준(동일 기준 적용)

2022학년도 학생부 기재 항목 서술식 내용 작성 기준(변경 기준 적용)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학년당 입력 글자수 범위

영역	세부항목	학년당 입력글자수 범위(고교 기준)	
		2019(고2~3)	2019(고1)
진로희망상황	희망사유	200	200
창의적체험활동 (4개 영역)	자율활동 특기사항	1,000	500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500	500
	봉사활동 특기사항	500	삭제
	진로활동 특기사항	1,000	700
	봉사활동실적 활동내용	250	250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일반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	과목별 500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	500
	예체능과목 특기사항	과목별 500	과목별 500
	개인별 특기사항	500	삭제
독서활동상황	공통	500	500
	과목별	250	25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000	500
학년이력	전공,과정비고	250	250

※ 2019학년도 고2, 3학년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 : 2018학년도와 동일

※ 2019학년도 1학년 영역별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 : 변경

II.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양식

학교생활기록부 I, 학교생활기록부 II의 양식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졸업대장번호				
구분 학년	학과	반	번호	담임 성명
1				
2				
3				

--

학년	전공과정	1학기	2학기	비고
1				
2				
3				

1. 인적사항

학생	성명	성별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	부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직업 :
상황	모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직업 :

2. 학적사항

2005년 월 일	중학교 졸업
2005년 03 월 02일	서울 고등학교 제 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제적·퇴학·자퇴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전·편입 년 월 일 전출·제적·퇴학·자퇴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전·편입 년 월 일 전출·제적·퇴학·자퇴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전·편입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졸업
특기사항	“교육부 고시 제1998-18호 1년 3학기제승인”

3. 출결상황

학 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														
3														

4. 수상경력

구분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교내상					
교외상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인증				

6. 진로희망사항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희망사유
		학생	학부모	
1				
2				
3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 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			
3			

학년	봉사활동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8.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2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일반교과(군)의 성취도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군)의 성취도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일반교과별 석차등급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 이하
2등급	4% 초과 ~ 11% 이하
3등급	11% 초과 ~ 23% 이하
4등급	23% 초과 ~ 40% 이하
5등급	40% 초과 ~ 60% 이하
6등급	60% 초과 ~ 77% 이하
7등급	77% 초과 ~ 89% 이하
8등급	89% 초과 ~ 96% 이하
9등급	96% 초과 ~ 100% 이하

9.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 상황
		(1학기)
		(2학기)

※ 과목 또는 영역란은 공통(담임교사 입력), 과목(과목교사입력)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 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	
3	

Ⅲ.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는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거나 그대로 옮겨적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래도 교사가 작성하는 영역으로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한 동기 등 지원자인 학생의 생각이 온전히 담겨있지 않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중 8번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기재한다지만 짧은 수업시간과 학년별 대입 준비의 환경에서 학급의 학생들 모두 또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면을 작성하는 것은 관찰자의 개인차에 의해 다를 수 있다.
- 학생의 생각도 포함되지만 교사의 객관적인 파악보다는 대입결과 등 교사의 근무환경에 의한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 본인의 입장에서 수업활동과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자기소개서가 필요하며 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 학교소개자료)의 내용과 자기소개서가 모두 학생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 학생을 평가하는데 학생 본인의 생각은 무시하고 학생을 평가하는 주변사람의 의견으로 선발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결과는 있어도 그 결과를 도출해 낸 과정이 담겨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드러내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없는 학생의 태도, 잠재력, 간략하게 적힌 전공적합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학생부 기재 항목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공통질문(1~3번)과 대학자율항목(4번) 작성이다.

자기소개서 1번 질문 항목 작성에 활용할 학생부 기재 항목

8.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①							
이수단위 합계										

8-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①

4. 수상경력

구 분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②				

9.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 상황
		(1학기) ③
		(2학기)

6. 진로희망사항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희망사유
		학생	학부모	
1	독서	외교관	외교관	④
2	독서	외교관	외교관	
3	영화감상	외교관	외교관	

학년	진로희망	희망사유
1		2017학년도 고 1학생부터 적용
2		
3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작성

(1) 자기소개서 1번 질문 항목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기소개서

대교협공통양식 < 1 / 4 >

-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필수 항목의 순서를 소개하였다. 실제 위의 4개 항목을 통합하여 항목별 연계에 의한 정리하여 작성해도 된다.
- 8.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시작하여 4. 수상경력 + 8. 세부능력특기사항과 9. 독서활동상황을 근거로 6. 진로희망사항에서 글을 맺게 된다.
- 진로희망사항은 자기소개서 대학자율항목인 4번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대학자율항목이 없는 경우는 1 ~ 3번 문항에서 적절히 제시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통합하여 참고할 학생부 기재항목은 아래의 7. 창의적 체험활동과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하여 6. 진로희망사항을 빼고 글을 맺을 수 있다.
- 7.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제공 프로그램인 초청강연, 체험활동관련 탐방, 교과 또는 진로 연계 행사 참가(참관)등과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세부 분류 항목 ② ~ ⑤를 활용할 수 있다.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 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 역	시 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⑤
	동아리활동		⑤
	봉사활동		
	진로활동		
2			
3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 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⑥
2	①인성영역 : 나눔, 배려, 규칙준수, 협력,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타인존중
3	②잠재적영역, ③인지적·정의적특성영역, ④자기주도적학습영역, ⑤창의성영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은 인성영역(나눔, 배려, 규칙준수, 협력,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타인존중), 잠재적영역, 인지적·정의적특성영역, 자기주도적학습영역, 창의성영역으로 세 부분류항목에 의하여 기재

자기소개서 1번 항목과 연계 과정에 의한 작성

- 위의 항목 외 내용이 기재된 학생부 항목은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세부영역 ① ~ ⑤ 중 ② ~ ⑤영역에서 찾아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선발기준은 학교생활충실도이다. 그런데 학교생활이라면 학생(학부모)들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염두에 두는데 학교생활의 중심은 교실수업이기에 교실수업을 통한 성장과정에 가장 주목하고 전공적합성과 자신만의 특별한 활동이다. 특별한 활동이란 그 동안 전례가 없었던 활동, 다른 학교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만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활동이다.
- 자신의 진로에 맞춰 어떤 수업을 들었고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어떠한지, 수업에서 가진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바탕을 다져주려는 생각에서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확장해 갔는지 등의 실천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런 수업활동에 대해 선택할 수 있으면 주어진 교실(수업) 내에서 활동한 결과를 말한다.
-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수업과목을 선택하여 듣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전공 선택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많은 부분들을 결정지어 주기에 누구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과목 개설은 교사위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 때문에 개설되지 않는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영역에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동아리활동이다. 정규 동아리가 없거나 들지 못하면 자율동아리, 수행평가에서 보고서, 소논문, 발표, 독서를 통해 할 수 있다.

• 1번 문항, 학업에 관련된 문항이다. 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요성을 교육부와 대학들이 강조하고 수업시간의 수업방식의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여 수업활동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1번에 들어갈 내용의 가이드라인이다.

• 학업역량이 낮은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극히 일부 학생에 해당되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수업시간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게 운영될 것이다. 이와 상관없이 수업 내에서 모둠활동, 발표활동, 수행평가(보고서, 발표)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트렌드인 수업시간 활동의 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의한 자기소개서 1번 항목 작성의 변화를 소개한다.

8.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①							
이수단위 합계										

8-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①

• ㉔ 수업시간에 ㉓의 내용을 듣고 공부하면서 ㉔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㉔에 대해 (㉔수업선생님께 질문과 답변 및 조언의 도움을 받아, 관련 도서를 찾아 읽고, 그 외 방법으로 ㉔에서 찾아) 알아보았다. 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여러 활동들을 통해 탐구한 지식을 이용해 ㉔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 이런 과정을 통해 꿈을 ㉔로 정할 수 있었다. 저는 이런 ㉔를 이용해 ㉔에서 ㉔이라는 일을 하는 것이 꿈이다.

• ㉔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㉔(‘무엇을’)하기 위해 ㉔(‘어떻게’)를 했다. 또한 ㉔(‘무엇을’)하기 위해 ㉔(‘어떻게’)를 했다. 이런 여러 활동과정에서 최종적으로 ㉔이라는 성과를 얻었으며 이 과정에서 ㉔을 느꼈다.

• 첫 번째 문단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흐름도가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활용하여 학업에 관해서 쓰는 문항이고, 공부란 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저렇게 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㉔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구체적인 ㉕을 준비해야 한다. ㉕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좋다.

-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자신의 전공과 이런 학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자기소개서 2번 질문항목에 써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전공과 학업이 연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1번 문항에 넣는 것이 나올 것이다. ㉔를 채우기 위해서는 ㉔이라는 직업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아두어야 하며 항상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 마지막 문단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서술하는 내용이 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활동들이 ㉔와 ㉔(어떤 점)에서 꿈과 연결되었는지, 구체적인 ㉔와 ㉔(활동)들을 쓰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㉔보다 큰 성과를 ㉔에 적어주면 자신이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이 저절로 설명될 것이다.

- 그리고 ㉔가 핵심이다. ㉔는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해왔는지를 나타내주는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2번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여기서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줄 요약할 수 있는 기회로 충분하다.

① 반전은 없지만 역전은 자신이 만든다.

- 역전이 있다는 것은 혹시 착각이나 유혹의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조심스럽다. 하지만 역전은 있다. 학생들마다의 학교, 가정, 지역 환경에 의하여 역전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환경에서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서류평가의 하나인 자기소개서(추천서)가 될 것이다.

- 대부분 학생들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별 등급의 향상 여부일 것이다. 5개 학기동안 꾸준히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였더라는 학습법이나 노력의 과정과 수상경력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될 것이다.

- 특정 학기에서 나쁜 등급이 다음 학기에서 조금은 좋아진 등급을 받은 내용으로 작성될 것이며 이 등급이 계속 유지되거나 낮은 등급에 대해 말하기 곤란할 것이다.

- 역전을 위해 1학년 때는 이렇게 나뻐는데 2학년 때는 이렇게 좋아졌거나 나아졌다.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걸 변화의 폭만을 강조할 뿐이다. 그런데 2학년 때의 활동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평범하거나 조금 나은 경우, 유지하는 경우, 아니면 다시 나빠지는 경우다.

- 아무것도 이루어 낸 것이 없는 경우다. 이런 서술 방식은 나쁜 것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쁘지 않았을 뿐이며 멍청한 학생에서 보통의 학생이 될 뿐이다. 보통의 학생들이 하

는 학교생활의 어떠한 의미도 보여주지 못한다.

- 1학년 때는 이 정도로 좋았는데 2학년 때는 더 좋아졌다고 쓰는 것이다. 같은 활동이나 습관이라도 나쁘게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은 좋게 포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면 1학년 때는 보통보다 약간 좋은 사람이었다가 2학년 때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글이 된다. 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서술 방식이 되도록 문장과 내용 구성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② 추상적인 것은 버려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 책을 읽어보았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연관된 책을 읽었고 깊이 있게 알아보았다. 다 좋았다. 뭔가를 알았으니 뿌듯했다. 이것은 그냥 좋았을 뿐이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조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좋았는지 무슨 내용을 찾아보았는지 써야 한다.

-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쓸 때에는 고등학생 수준 이상이 아닌 심화수준의 전문 지식이 들어가면 좋다. 그렇지만 구술면접이나 심층면접, 상황면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위해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나중에 면접 가서 훌륭하게 설명만 해내면 매우 우수한 평가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

③ 느낀 점은 최소화 하고 통합하라.

- 사실 느낀 점을 최소화하라 그렇다면 아예 쓰지 마라,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쓰란 말이야 지금까지 귀에 딱지가 앉도록 그리고 눈이 충혈이 되도록 듣고 읽었는데 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보고 느낀 것 위주로 쓰는 건데 느낀 점을 쓰지 말라니 할 것이다.

-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제출하는 일기장이나 개인적으로 쓰는 일기장처럼 한 줄의 활동에 덧붙여 느낀 점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은 ~했다. 참 좋았다. 그에게는 ~했다. 참 재미있었다.' 아니면 활동마다 느낀 점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또는 이와 비슷하게 문장을 서술하는 방식의 자기소개서 쓰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 문장을 구성한다면 활동에 대한 내용만 쓰는 것이 나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느낀 점을 쓸꺼면 아예 안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단순하거나 단순하지 않다고 해도 느낀 점을 억지로 중구난방으로 쓰면 느낀 점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보이거나 느껴진다. 글의 수준도 굉장히 낮아보이게 된다.

-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느냐, 나중에 쓸 2,3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느낀 점을 통합하고 활동들에서 느낀 점이 저절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느낀 점은 뻔하지 않은 말들로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활동 내용이 느낀 점의 말들을 저절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해서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④ 굳이 글을 잘 쓸려고 하지 마라. 진정성과 내용이다.

- 간단히 말해서, 너무 잘 쓰면 의심이 간다. 문장의 표현력에서 부분적인 대필 흔적으로 보이게 된다. 또한 첨삭을 받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로 인하여 학생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대필의혹을 줄 수 있다.
- 모두 남이 쓴 것을 대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분적인 대필도 대필이다. 즉, 표현력과 단어 사용에서 지식수준에 맞추거나 이 정도의 단어나 문장 표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필력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자기소개서 2번 질문 항목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 1,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기소개서

대교협공통양식 < 2 / 4 >

자기소개서 2번 질문 항목 작성에 활용할 학생부 기재 항목

8-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①

4. 수상경력

구 분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②

9.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 상황
		(1학기)
		③
		(2학기)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 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 역	시 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⑤
	동아리활동		⑤
	봉사활동		⑤
	진로활동		
2			
3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⑤				
2					
3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 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⑥
2	①인성영역 : 나눔, 배려, 규칙준수, 협력,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타인존중
3	②잠재적 영역 ③인지적·정의적특성 영역 ④자기주도적학습 영역 ⑤창의성영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은 인성영역(나눔, 배려, 규칙준수, 협력,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타인존중), 잠재적 영역, 인지적·정의적특성 영역, 자기주도적학습영역, 창의성영역으로 세부분류항목에 의하여 기재

자기소개서 2번 문항 작성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1,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 교내 활동을 쓰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교내 활동들을 길게 풀어서 써보라는 것이다. 활동 내용 위주로 하지 말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써 보는 것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활동들을 추려내야 한다. 추리고, 추리고, 또 추려보면 가장 의미를 가진 ‘무엇을(What)’, ‘어떻게(How)’한 것들 중에서 ‘왜(Why)’했는지에 중요한 의미를 둔 활동만 남는다.

• 1,500자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 본다. 3등분하면 500자가 된다. 그러므로 활동 3 개를

쓸 것이라면 하나당 대략 500자 정도로 채워야 한다. 그런데 500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Fact+ 느낀 점+@ 정도 밖에 못 쓸 것이다. 활동 3개를 쓰면 모두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만 자기소개서에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활동들이 정말 특별하거나 필력이 정말 좋아야 한다.

- 그래서 '무엇을(What)', '어떻게(How)'에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왜(Why)'라는 것에 의미를 둔 가장 중요한 활동은 2개, 학업 혹은 탐구(연구)에 관련된 것 하나, 인성 혹은 리더십에 관련된 것 하나로 구성하면 된다. 2개 중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려면 어떤 것을 강조할지 정해야 된다, 이것은 두 활동을 서술한 길이를 다르게 하면 된다.

- 의학계열 또는 상위권 대학(학과) 등 경쟁이 치열한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탐구(연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탐구(연구)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탐구(연구)를 900자, 인성을 600자 또는 850자 ~ 900자, 600자 ~ 650자로 조절할 수 있다.

- 이렇게 나눈 900자는 활동 소개 + 동기 + Fact(1) + 느낀 점(1) + 후속(또는 연계)활동(1) + Fact(2) + 느낀 점(2) + 후속(또는 연계)활동(2) + 마무리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 나머지 600자는 활동 소개 + 동기 + Fact(3) + 느낀 점(3) + 후속(또는 연계)활동(3) + 마무리로 구성하면 된다.

- 활동 소개는 말 그대로 간략한 활동 소개다. ~을 했습니다. ~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 대학에서는 활동(직접 또는 연계활동)들의 지속성과 팀워크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얼마나 오래했는지를 명시해주는 것이 좋다.

- 동기는 이 활동을 '왜(Why)'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괜찮지만 이 부분이 감동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가 있을 경우는 50자 내외에서 간단히 적어(소개)주어도 괜찮다.

- 순서를 바꿔서 느낀 점은 솔직하고 포괄적인 것이 좋다.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없어 보이고, Fact 관련짓기도 어렵게 된다. 무슨 명언 같이 쓰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이런 표현 하나 하나에 입학사정관(위촉입학사정관)과 면접관들이 감동할 수 도 있을 것이다.

- Fact는 정말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 문제에 나와 있는 '느낀 점을 중심으로'라는 말은 느낀 점을 많이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라는 뜻이다. 구체적인 Fact를 잘 드러내고 난 뒤에는 이 Fact를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열정적으로 탐구(연구)할 때의 즐거움을 깨달았다'는 느낀 점이고 '밤에 탐구(연구)하느라 늦게 잤다'가 Fact 라면, '밤에 늦게까지 탐구(연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내일은 어떤 탐구(연구)를 할 지 고민을 하느라 밤잠을 설쳤다.'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 후속활동은 느낀 점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달라졌고, 달라진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적는 부분이다. 후속활동은 진취적이면 진취적일수록 좋다. 다짐을 적는 것도 좋지만 다짐을 적었다면 면접에 가서 그 다짐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꼭 설명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마무리다. 모든 글은 작성이 끝나면 퇴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느낀 점과는 다르게 좀 구체적이고 이런 활동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마무리하는 말이다. 이것들을 항상 잘 생각해 보고 정리하여 짧은 문장으로 하나 또는 두 문장으로 서술해야 한다. 앞의 마무리 문장과 뒤의 마무리 문장을 이었을 때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구나 라는 것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2번 문항은 '나는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이 잘 드러나게 하는 문항이다. 즉,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낀 점들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야 되고 느낀 점과 마무리로 작성된 문장(말)들이 통일성(일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연구하고, 어떤 학생이다'라는 마무리 말을 생각해 둔 뒤, 그에 맞는 느낀 점들을 적는 것이 좋다.

-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은 어느 학원에 가서 배우거나 배울 수도 없고, 교사에게 들었지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시중에 나와있는 소개 책자나 졸업생의 자기소개서를 참고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자기소개서를 4번 이상 고쳐가면서 첨삭도 받고 조언도 듣고 하면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자기소개서 3번 질문 항목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기소개서

대교협공통양식 < 3 / 4 >

자기소개서 3번 질문 항목 작성에 활용할 학생부 기재 항목

4. 수상경력

구 분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②				

7.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 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 역	시 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⑤
	동아리활동		⑤
	봉사활동		⑤
	진로활동		
2			
3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⑤				
2					
3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 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⑥
2	①인성영역 : 나눔, 배려, 규칙준수, 협력,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타인존중
3	②잠재적영역, ③인지적·정의적특성영역, ④자기주도적학습영역, ⑤창의성영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입력은 인성영역(나눔, 배려, 규칙준수, 협력, 갈등관리, 관계지향성, 타인존중), 잠재적 영역, 인지적·정의적특성 영역, 자기주도적학습 영역, 창의성영역으로 세부분류항목에 의하여 기재

자기소개서 3번 문항 작성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 세부 분류항목인 인성영역, 잠재적 영역, 인지적·정의적 영역, 자기주도적학습 영역, 창의성영역으로 배치할 수 있다.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 우선 '학교생활 중'이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한 활동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학교생활 중에 다른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한 것도 괜찮을 것이다. 굳이 질문지의 4개 항목들을 2개씩 묶어 준다면 (배려, 나눔), (갈등관리, 협력)가 될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1번과 2번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묶음 또는 없는 항목에 관해서 써주면 된다. 활동마다 애매하게 섞여 있을 수도 있으나 너무 분류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2번이 배려와 나눔에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라면 갈등관리와 협력에 관련된 활동 2개 또는 배려와 나눔에 관련된 내용으로 채우면 될 것이다. 4개

항목이 모두 드러나게 쓰려고 하면 어떤 것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4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 갈등관리와 협력의 경우에는 학생회(학급회)나 동아리 활동(동아리 반장)을 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근거자료로 자기소개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서 작성할 경우에 추천서를 써 주는 교사에게 추천서에 이런 내용을 추가로 써달라고 부탁하고 자기소개서에는 배려와 나눔에 대해 적는 것을 추천한다.

- 3번 문항은 활동내용이 대부분 비슷하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에 가장 흔하게 작성된 내용은

- ①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 혹은 교내활동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어찌 어찌해서 다 갈등을 잘 풀고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했다.

- ② 봉사를 자의(자발적)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봉사를 하면서 나도 많이 얻었고, 봉사의 즐거움을 깨달아서 계속하게 되었다.

- 상위권 중에 60%에 가까운 학생들은 3번 문항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며 실제로도 이렇게 쓰게 될 것이다.

- 자기소개서 대학선택 4번 문항이 있던, 없던 대부분 학생들이 작성하는 내용의 분류는 먼저, 2번과 3번을 통합하여 5가지 정도에서 3가지, 2가지 또는 3가지, 가장 기억에 남고 글자 수를 염두에 둔 1가지의 교내활동 또는 비교과영역에서 분류한다. 두 번째, 전공적합성과 연계된 교내활동 또는 비교과활동에서 교과연계 활동을 적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아래의 예시는 전공적합성 연계한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지원 대학(학과)과 상관없이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를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편에 속한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남들과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전공적합성'을 추천한다. 쉽게 말해 내가 이 학과에 왜 적합한지를 들어내는 것이다.

- 자신의 전공과 관련지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아주 솔직하고, 자세하고, 특별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느낀 점을 20% 내외로 쓰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느낀 점을 40%내외로 2배 정도로 적는 것이 좋다. 아래에 소개한다.

(사례 1)

제 꿈은 의사죠. 의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짧은 인연을 만들지만, 그 짧은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보고, 2가지 느낀 점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기계공학자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찾아, 사람들의 불편함을 직접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건축가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안함과 예술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신만의 2가지 고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찰을 자신의 봉사와, 그리고 자신의 느낀 점과 잘 연결 짓는 것이 3번 문항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쓰는 것을 추천한다.(활동 1개, 500자 내외 또는 활동 1개, 750자 내외)

• 활동 소개① → 갈등 혹은 인상 깊은 일② → 자신이 한 노력 또는 과정③ → 느낀 점④ → 고찰⑤ → 심화된 활동 혹은 노력⑥ → 다짐⑦ 의 순서다.

① ‘활동 소개’는 너무 자세하게 쓴다면 다른 내용을 충분히 쓸 글자 수가 부족하다. 500자 안에 7가지를 다 넣어야 하므로 20~30자 정도로 간략하게 쓰고 학교생활기록부로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써야 한다.

② 갈등, 혹은 인상 깊은 일이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봉사나 기타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활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것은 이 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된다. 자세하게 그리고 뻔하지 않은 것으로 60~80자 내외로 적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 봉사라면 있었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잘 요약하기만 해도 되며 좀 특별한 경우의 봉사활동이라면 그 봉사활동에서 했던 인상 깊었던 활동들을 써주기만 하면 된다.

③ 자신이 한 노력은 그냥 솔직하게 적어주기만 해도 된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자신이 마음을 얼마나 쏟았는지를 표현해주기만 해도 된다. 이 부분이 너무 일반적인 경우에는 노력은 앞의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날 수 있으므로 생략해도 된다.

④ 느낀 점이다. 느낀 점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느낀 점은 고찰에 앞서 고찰을 쓰기 전에 고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놓는 것으로 고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기 전의 바둑의 포석에 해당된다. 고찰에 대한 내용을 적기 전에 느낀 점은 훌륭한 포석에 해당된다. 고찰, 갈등과 무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소 포괄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너무 뜬 구름 잡는 말이나 일반화된 내용은 피하거나 쓰지 말아야 한다.

⑤ 가장 중요한 고찰이다. 학생 자신이 고찰까지 완성했을 때 나 자신과 남들이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고 온 몸이 전기충격을 받은 것처럼 찌릿하거나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성

공일 것이다. 그만큼 여기는 감동적으로 써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한 만큼, ~~한 만큼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느꼈다.' '~~이지만, ~~를 하는 분들을 보면서, ~~를 느꼈 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층적으로 자신과 남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쓰 면 훨씬 감동적이 될 것이다.

⑥ '심화된 활동 혹은 노력'은 말은 '심화된'이지만 직업에 대해 이런 고찰을 해본 자신이 달라진 모습으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쓰면 된다.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활동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해 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⑦ '다짐'은 고찰을 바탕으로 제가 ~~가 된다면 ~~를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부분이다. 자 신의 직업 이름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 가식적일 수 있고 첨삭이나 부분 대필과 같은 인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이 '고찰'을 바탕으로 이 직업인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쓰기 만 하면 된다. 다만 너무 구체적이면 정해진 것도 없는데 너무 억지로 꿰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4번 질문 항목

4.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 육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하시오

☞ 1,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기소개서

대학자율양식 < 4 / 4 >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작성

- 자기소개서 질문항목인 1번과 2번 그리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활동들을 전체적으로 통 합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 대학자율 질문항목인 4번은 대학마다 질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맞 추어 작성하면 된다.
- 독서활동을 기재하는 서울대외에는 ① 지원동기 → 노력한 과정 → 교육환경이 성장에 미 친 영향 또는 ② 지원동기 → 노력한 과정 → 학업계획 → 졸업 후 목표에 대학 인재상, 학 과 전공적합성, 자신이 뽑혀야 할 이유, 대학에 대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등이다.

IV. 자기소개서(Ⅰ)

-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학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 일반고 활동(수행평가, 보고서, 소논문, 발표)내용이 최상위 학생도 해당된다.
-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선행 작업이 중요하다.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한 면의 양식에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2년 반의 학교생활의 기록물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활동들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 자기소개서 글감 목록

(1) 목록표

학생부 전체(면수)	()장									
학생부 항목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내용				평균등급		평균등급		평균등급	
과목별 성적추이	국어	1학기								
		2학기								
	수학	1학기								
		2학기								
	영어	1학기								
		2학기								
	사회	1학기								
		2학기								
	과학	1학기								
		2학기								
반영과목	100:100:100				평균등급					
	20:40:40				평균등급					
	반영과목				평균등급					
수상	교과 수상									
	비교과 수상									
동아리										
봉사활동	총시간()				시간		시간		시간	
봉사활동 내용	교내									
	교외									
독서활동										
학급회 활동										
학생회 활동										

(4) 목록표 항목별 특별활동 내용 요약

- (1) 수상 실적은 없지만 의미 있게 참여한 교내대회
- (2) 교과관련 수상경력 : 학업 분야, 교과 경시대회
- (3) 비교과관련 수상경력 : 교내활동분야, 인성분야
- (4)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분야
- (5) 동아리활동 : 부서 및 내용
- (6) 봉사활동 : 교외 봉사활동
- (7) 진로활동 : 전공적합성
- (8) 교과학습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키워드) : 학년별, 교과별 특별 활동 내용 요약
- (9) 독서활동 : 공통분야, 과목별 분야

총 24장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 1학년 1.8 2학년 1.14 3학년 1.11 (약간상승)

수상 : 교과우수상 28개, 그 외 수상 29개

동아리 : 자치법정 회장(1-3학년), 영어 신문반 부회장(1-3학년), 독거노인 봉사 동아리(1-2학년), 환경 정화 봉사 동아리(1-3학년), 골드버그 머신 초등학생 교육 동아리(3학년)

봉사활동 : 290시간(1학년 126시간 2학년 130시간 3학년 34시간) + 30시간(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 / 아동학습센터멘토링(1-2학년), 지역 환경정화(1-3학년), 독거노인 봉사(1-2학년)

독서활동 : 1학년(12권), 2학년(13권), 3학년(4권)

기타 : 학생회 바른생활부 차장(1-2학년), 학급 부반장(3학년), 축제준비위원회 총괄 팀장(2학년)

[학교 공부 노력]

* 성적 변화 추이 :

1학년 국, 영, 수, 사, 과, 한국사, 기가 [1.8]

1학기 3, 1, 1, 2, 1, 2, 4

2학기 1, 1, 1, 3, 1, 1, 4

2학년 국, 영, 수, 사문, 세지, 윤사, 동아시아사, 과학, 한문 [1.14]

1학기 1, 1, 1, 1, 1, 1, 2, 1, 2

2학기 1, 1, 1, 1, 1, 1, 2, 1, 2

3학년 국, 영, 수, 생윤, 법정, 한국사, 중국어 [1.11]

1학기 1, 1, 1, 1, 1, 1, 2

전과목(100:100:100) 1.38

전과목(20:40:40) 1.27

국영수사과 1.13

[상은 없지만 의미 있게 참여한 교내대회]

1. 영어 UCC 제작 (1학년) - 이를 계기로 외국 학교 생활에 관심이 생겨서, 영어 신문 동아리에서 기사로 씀
2. 과학의 날 글짓기 행사 (1학년) -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글을 적음. 철학과와 연결 가능

[수상경력]

(학업 분야/교과 경시대회)

1. 과목우수상
2. 백일장(수필부문) - 참방 (1학년)
3. 국어 토론대회 - 우수 (1학년)
4. 사회문화 UCC 만들기 - 대상 (2학년)
5. 영어 경시대회(단어 시험) - 금상 (2학년)
6. 생명과학 창의력 발표대회 - 우수 (2학년)
7. 수학 사고력 증진대회 - 최우수 (2학년)
8. 법과 정치 골든벨 - 은상 (3학년)
9. 2017. Voca Queen Contest(단어 시험) - 우수 (3학년)
10. 먼학상 (3학년)

[활동/인성분야]

1. 표창장(봉사부문) - (1학년, 2학년, 3학년)
2. 표창장(학생생활평점제) - (1학년, 2학년)
3. 자기주도 학습코칭캠프 소감문 쓰기 대회 - 최우수 (1학년)
4. 동아리 활동 발표 대회 - 최우수 (1학년), 장려 (2학년)
5. 동아리 진로 독서 토론 대회 - 우수 (1학년)
6. 7942 학교폭력예방대회(독후감 쓰기 부문) - 장려 (1학년)
7. 골드버그 머신 창작 대회 - 우수 (2학년)
8. 창의력 3종 대회 - 우수 (2학년)
9. 탐구 토론 대회 - 최우수 (2학년)
10. 자기소개서 쓰기 - 우수 (2학년)
11. 텃밭가꾸기 체험대회 - 동상 (2학년)
12. 수학여행 발표대회 - 최우수 (2학년)
13. 나라사랑 독도의 날 행사(글짓기 부문) - 최우수 (2학년)
14. 영어 POPSONG CONTEST - 대상 (2학년)
15. 특별활동 우수상 - (2학년)
16. 김해 역사 알리기 UCC 제작 - 최우수 (3학년)

[자율활동]

1. 장애인해교육 (1학년) - 사회문화 UCC 대회 (2학년) 때 주제로 했던 '유니버설 디자인'과 연결 가능
2. 전문직업인 초청강연 (1학년) - 언론과 알 권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적혀 있음.
3. 학생회 (1-2학년 초) - 바른생활부 차장으로서 노력하였음 어찌고, 구체적인 내용 많지만, 너무 흔한 소재...
4. 축제 준비 위원회 (2학년) - 이것도 학생회와 동일
5. 과학의 날 행사 (2학년) - 자소서 1번에 적은 내용(골드버그 대회 참가 → 학습 태도 변화)
6. 학급 임원 선거 부반장 당선, 학급 분리수거 도우미 (3학년)
7. 마음발 가꾸기 감성교육 (3학년) - 연세대 4번 문항에 답아낸 '긍정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문장이 많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험 스트레스도 극복하려 한다는 활동지를 씀. 실제로 1학기 1차고사 성적이 하락해서 낙담했으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2차고사 때 성적을 향상시킴.'

[동아리활동]

1. 학생자치법정 (1-3학년) - 2학년 회장.
2. 영어 신문반 (1-3학년) - 국제부(1학년) [(...)live as a student in outside of the world] /국내부(2, 3학년) [(...)process of a candlelight rally, (...)slow life] - 'Slow Life', 'Process of a candlelight rally'는 각각 철학과, 철학과 선정 동기(윤리와사상 나도교사다)와 연결 가능
3. 뉴 스포츠 배구 (2학년)
4. 골드버그 멘토링 (3학년) - '초등학생에게 멘토링을 하면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함.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구연동화를 해서 흥미를 끄는 등 어린아이들과도 곧장 소통하였음.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부분이 '농구', '텔레비전 프로그램'임을 파악해서, 이를 활용해 친근하게 접근해 아동과 친해지는 모습이 인상적임.'
5. 휘몰이 방과후 스포츠 클럽 (3학년)

[봉사활동]

1. 진로 도우미 (1학년)
2. 동화책 번역 E-connect 동아리 활동 (1학년) - 한 번 했지만 봉사 활동 기록엔 남아 있음
3. 봉사단체 그린리버 (1-3학년) - 환경정화 단체.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4. 지역사회봉사단 3G (1학년-2학년 초) - 자소서 2번에 등장
5. 불암지역 아동센터 멘토링 (1, 2학년) - 저소득층·혼혈 가정 아동들 멘토링 활동.

[진로활동]

1. 수학 영재반 (1학년) - 경남 수학 체험전 수학 체험 활동 프로그램 수행.
2. 조영래 변호사 언급 (2학년)
3. 그 밖에 1-3학년 쪽 '인권 변호사', '법조인' 키워드 많음. 하지만 진로 활동 자체가 형식적인 게 대부분이라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교과목 세부특기사항 (키워드)]

* 1학년

- 국어(1학기 10줄 - 2학기 10줄) : ‘분리수거 중요성’ 공익광고 제작, ‘낙태의 합법화’ 찬반 토론-찬성, ‘교육의 양극화’ 매체 자료 제작,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는 길(김시습)’을 읽고 동양 철학에 관심이 생겨서 강의 들었음.
- 수학(8줄 - 10줄) : 꼼꼼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 조언을 구하여 실수를 줄이려 노력함, 방정식과 인수분해는 교과서 외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심화탐구, 단원별로 공부방법 달리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찾음
- 영어(9줄 - 7줄) : 국제 변호사가 되기를 꿈꿈, 조별 토론 시간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 경청하고 자신 의견 발표하는 의사소통 향상, 영화를 원어로 보는 등 영어 학습에 열의가 많아 독해·듣기 실력이 향상 되었고 모의고사와 듣기 평가 등 영어에 대한 흥미가 강조
- 사회(3줄 - 7줄) : 김해뉴스 청소년 기자 활동한 거. 지역 사회에 관심 있고 자치적 갈등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 모습을 취재했다고 함. (후자는 김해총학생회연합 포럼 참석한 거 기사로 썼던 거.)
- 미술, 과학, 한국사, 기술가정은 적혀있긴 하지만 2-4줄로 강조할 내용은 없음.

[교과목 세부특기사항 (키워드)]

* 2학년

- 국어(9줄 - 10줄) : ‘소록도민 인권침해 사례’ 조사해서 발표, ‘사회적 약자에 깊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줌’. ‘허클베리 핀의 모험’ 감상적 읽기 방법으로 읽고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의 중요함 전달’하고 ‘미국의 당대 사회문화적 배경과 마크 트웨인 자료까지 폭넓게 조사해서 감상하는 창의적 학생’
- 수학(6줄 - 2줄) : ‘치밀한 계산력을 지니고 있어 사칙연산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영어(5줄 - 10줄) : 영어 모의고사 1등급 유지, 회화 관련 내용이 강조됨.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 감상 후 영화 속 ‘프릭크라임 제도와 우리나라 형법 제도 비교분석하고 각 상황에서 인간의 의지가 중요함을 깨달음’. ‘역사적 사진 단원 공부 후 원자 폭발 사진, 전 민정수석 검찰 수사 사진 선택하여 발표. 달리 작품에 원자 폭발이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는 등 과목을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 기득권층에 대한 차별 없이 정의 실현하는 법조인 되고자 다짐함.’
- 사회문화(6줄 - 5줄) : 사회문화 UCC대회 자세하게 적혀있음.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있음 질문하고... 서양 위주 사상 비판하고... 포용력 중요성 이해하고...
- 세계지리(1줄 - 5줄) : 호스트 역할 하면서 조별 토론 활발히 이끌었음. ‘세계의 인문지리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아프리카 국경선 설정 배경으로 내전 발생 원인 잘 이해’
- 윤리와사상(5줄 - 5줄) :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일치하는 공자의 가치 덕목을 선정해 보고서 작성.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신문 기사 스크랩. 대동사회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의 윤리적 의식과 사랑이 필요함을 제시, 나도교사다 에 참여해서 실존주의에 대한 시간 수업을 진행함(자소서 2번 문항에 자세하게 풀어씀).
- 지구과학, 동아시아사, 생명과학, 체육 : 각 2-3줄씩만 적혔고, 강조할 부분은 없음.
- 한문(10줄) : 사고 폭 넓고 논리적 학생, 한문학습 도우미 활동을 책임감 있게 잘함, 공자의 리더십을 배우며 개인이 스스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생각하여 발표함, 순자의 성악설에 동감하며 사회를 위한 중재자가 필요함을 느끼고 훗날 그런 역할에 적합한 사람이 될 것이라 발표함,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UCC대회, 축제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실천하고 확장하고자 함
- 야자 열심히 하고 보충수업 열심히 듣고 농작물 열심히 키우고 했다고 함.

[교과목 세부특기사항 (키워드)]

* 3학년

- 국어(10줄) : 문법 수업 때 교사적인 면모, 급우들의 반응을 열심히 살핌,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찾아내는 예리함과 분석적 사고력
- 수학(5줄) : 덜렁거리던 습관을 개선했다고 한다... 과연...!
- 법과정치(3줄) : 행복한 사회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사고로 해결에 접근하는 모습
- 한국사(6줄) : 조원들과 생긴 의견 불일치 해결하면서 수행평가 과제 수행함. 친구들과 얘기하고 공유하는 학습법은 1,2학년 세특에도 가끔 언급됐던 부분이니 연결성 있음
- 생활과윤리(10줄) : 나도교사다 프로그램에서 본인 관심사였던 사형제도를 주제로 수업하고 칸트의 사상을 알게 되어 의미 있었음. 통일 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UCC 제작함. 친구들과 목표 실현시켜나가는 단합력. 윤리 쟁점 토론 수업에서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 역차별과 세대별 남녀 임금 격차의 근거 등을 자료로 제시하여 반대. 조원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 제공,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발표하는 점을 칭찬받아 급우들로부터 토론 MVP로 뽑힘.
- 영어는 기재 된 부분을 아직 못 읽어보았음, 체육 미술은 2줄, 6줄 정도 수행평가 한 내용

[독서활동]

- 국어 (6 - 3 - 0 / 9권) : 에네겐 아이들(문영숙), 쌍둥이별(조디 피콜트), 술 권하는 사회(현진건), 변신(프란츠 카프카), 큐리어스(이언 레슬리), 죽은 시인의 사회(클라인바움), 나무(베르나르 베르베르),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김진경), 군주론(마키아벨리)
- 수학 (1 - 0 - 0 / 1권) : 다빈치코드(댄 브라운)
- 영어 (0 - 1 - 0 / 1권) : 허클베리 핀의 모험(마크 트웨인)
- 사회 (4 - 8 - 4 / 16권) :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이 많이 달라보일 걸(강돌수), 어느날 당신이 눈을 뜬 곳이 교도소라면(잭 자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1,2학년 중복), 역사란 무엇인가(E.H.카), 앵무새 죽이기(하퍼리), 진태일 평전(조영래), 의자놀이(공지영), 연을 쫓는 아이(할레드 호세이니), 천개의 찬란한 태양(할레드 호세이니), 1984(조지 오웰), 고요한 밤의 눈(박주영), 대한민국 민주화 이야기(강원택), 생각하는 힘 스피노자 인문학(심강현), 푸코 감옥에 가다(조상식), 디케의 눈(금태섭), 철학의 참견(신승철 외)
- 공통 (0 - 2 - 0 / 2권) : 목민심서(정약용),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정지우)

(㉔) 글감 목록표에 의한 작성

1. 글감 정리

- 학교생활기록부, 겪었던 에피소드를 종합해서 자기소개서에 쓸 만(법)한 글감들을 엮어 1~ 4번에 어울리는 것들을 배열했다.
- 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 저장한 내용이고 아래 표는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 각 항목에 활동을 배치 작업한 내용이다. 학생의 글감 정리와 학교생활 기록부 정리 내용을 간략히 적어 둔다.

1.	공부를 하는 계기를 찾은 것이 과학 과목에서의 활동(무엇이든 열심히 도전하기 위해 노력) 어려웠던 과목을 극복하기,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도 옴 공부를 하다보니 소수자에 관심을 갖게 됨(1학년 사회과목 단원 표시,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자치법정 활동	:
3.	(1) 가까운 곳에서부터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심, 갈등 관리 친구들과 만든 동아리를 개혁하여 지역사회 봉사함. 처음에는 친구들과 갈등이 있어 아슬아슬하게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2학년 때 농촌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등 성과가 있었음 (2) 자치법정 동아리 (3) 배려, 나눔 학습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음. 소외된 친구들을 돕고 친구가 되어주고 학습을 도와 친구들에게 봉사상 수상 추천을 받음
:	:
5. 동기	윤리와사상 과목에 흥미가 있었으며 실존주의 사상을 공부한 활동을 바탕으로 철학이 있는 변호사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결심하여 철학과 진학을 결심하게 됨-과거의 실존주의 사상을 끌어와 현재의 내 삶이 바뀌었음. 철학과에서...이렇게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오히려 지금처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본질적으로 인간을 깊게 탐구하는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 5. 성장과정-친구의 편지, 내 삶의 철학, 나의 건강, 아빠와 엄마와의 어릴 적 기억 더듬어....부모님을 통해 나의 어릴 적 기억과 생각, 성격,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릴 때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2. 글로 적기

- 처음부터 사례를 가지고 배운 점, 느낀 점을 생각하거나 글감이 평범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되었으니 내 생각은 특별해야 해 하는 생각으로 글을 써 나가면 글이 의도적으로 보이게 작성된다.
- 글감이 결정되었으면 글감에 대해 생각나는 것은 뭐든지 다 써 본다. 글자 수 제한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더 이상 쓸게 없다 싶을 때까지 쓴다. 아무런 틀도 생각하지 말고 실컷 적는다. 지금 내용이 산으로 가 던 바다로 가 던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된다.
- 처음부터 완성된 글과 글자 수를 생각하고 쓰려는 마음은 버리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써 나간다. 생각나는 대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세하고 재미있게 써 나간다.
- 쓸 때 몇 번이고 수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소신껏 써 나간다.
- 자신의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식으로 적던 상관없이 글자 수가 초과되던 어색한 표현이 들어가던 우선 자신이 쓸 경험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다 옮겨 적

어서 더 이상 그 경험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세하게 쓴다.

- 닥치는 대로, 말이 되던 안되던 간에 거의 모든 핵심 활동들을 각 항목에 끼워넣은 다음에는 그 활동에서 느낀 점들을 글자 수를 신경 쓰지 않고 적는다. 처음 쓸 때 2번 항목에 적을 봉사동아리를 예로 한 활동만으로도 2000자가 되던 3000자가 되던 상관없다.

- 처음 활동들을 글로 옮기는 때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작문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정말 쓸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쓰면 글감이 어떠한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고 자신만의 생각이 글감이 평범해도 충분히 보완할 만큼 풍부하게 담겨 있는 훌륭한 글이 된다.

3. 수정하기

- 불필요한 표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표현을 지워나가며 어떤 것을 버릴지 모르겠다면 선생님, 부모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한다.

- 좀 더 깔끔한 글이 될 수 있도록 내용 정리, 문맥 정리 등으로 글도 다듬고 내용도 정리한다. 이 때, 수정을 할 때 처음에는 문맥이나 어휘, 문법적인 부분처럼 언어적인 부분은 잠시 뒤로 젖혀두고 내용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 내용 정리가 끝난 후에는 글자 수에 대한 부담은 없으니 이 후에 비로소 마음 편히 먹고 언어적인 부분인 참신한 표현과 단어선택, 한 단락에서 같은 단어가 쓰인 경우에는 단어와 관련된 어휘, 대체가능한 단어, 구절을 찾아 수정하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글을 다듬으면 훨씬 수월하다.

- 포털사이트(네이버)의 국어사전, 시중에 있는 자기계발서 중에서 자신이 한두 권은 읽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독서상황에 적은 책이나 자기소개서와 관련 있는 책의 저자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고 글쓰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어선택, 문장 표현에 있어 높은 수준이므로 책 속의 참신한 표현을 찾아 자신의 글 내용에 맞게 고쳐서 넣는다면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

※ 저자인 본인도 원고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첨삭(검토)을 위해 꾸준히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으며 책 속의 문장에 다양한 색으로 밑줄을 그어놓거나 활용하는데 필요한 책장은 표시를 해서 찾기 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찾은 단어나 표현들을 활용하여 원고나 자기소개서의 표현을 바꾸거나 표현을 좀 더 부드럽게 또는 고급스럽게 보여 독서상황에 적합한 독서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또한 단락 내 또는 단락 간에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4. 자기소개서는 많이 쓸수록 가다듬어진다.

- 대부분의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들어간 후에도 수시모집

의 어떤 전형에 지원할 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상담을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 지금까지 학교생활은 내신성적과 수능대비 모의고사 공부만 했다. 수업시간, 야간자율학습시간, 심지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교에 나와서도 이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

- 학생들은 가장 먼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찾는다. 논술전형은 학업역량에 의해 거의 지원할 학생들이 결정되어 버린 전형이다. 또한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 결과를 내신성적으로 발표하면서 학생(학부모)과 교사들은 대학입시를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성적으로, 적성전형, 논술전형은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모집은 수능성적으로 지원할 대학(학과)을 결정해 버린다.

-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점이 8월의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후부터 9월 원서접수기간을 지나 서류마감까지 4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수능 공부를 버리고 집중적으로 작성해야한다. 학교(교사)와 학생 스스로 수능을 망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었다.

▶ 자기소개서 쓰기를 시작한 시점이 다소 늦은 편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완성시키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솔직히 고 3 생활을 한 이래로 가장 힘든 시기가 자기소개서 작성과 원서 작성으로 고뇌하던 8~9월 두 달이었다. 어찌 어찌 완성한 뒤에 비로소 절감한 것이지만, 자기소개서는 다듬을수록 더 깔끔하고 좋아진다. 어찌면 2개월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꼭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보는 것이 좋다. 늦게 시작했다가 너무도 힘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어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5. 글의 '퀄리티(Quality)'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 여기서 Quality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문체라든가, 고급스러운 어휘라든가, 매끄러운 표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드러운 표현 등의 언어적인 요소에서의 '질'을 말한다.

-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그다지 매끄럽게 쓰는 편은 아니고, 오히려 일목요연하지 못해 난잡한 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사여구나 남의 글 한두 문장쯤 하며 베껴 넣는데 이것은 자신의 글과 어울리지 않거나 이미 너무 많이 자기소개서에 사용되어 식상한 표현으로 자신의 글을 망치게 된다.

- 퇴고할 시간이 많으면 글을 다듬기도 쉬운데 퇴고 시간이 부족하면 더더욱 글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지원한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에서 글의 'Quality'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에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글의 'Quality'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물론 글을 잘 적는 것 또한 엄청난 매력과 결과를 함께 가질 수 있지만, 글을 다듬기보다는 내용의 정리에 먼저 주안점을 두라고 말하고 싶다. 최소한의 가독성만 갖춘다면, 내용을 좀 더 자기소개서 각 문항에 맞추어 다듬는 것이 오히려 입학사정관들의 눈에 떨 수 있을 것이다.

6. 1번 문항에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내신성적만이 아니다.

-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 ‘1번’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문이다.
- 대부분 이 항목에는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 '어떤 과목의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우수했던 이유', '특정 교과에 흥미가 있었던 이유' 등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며 글도 그렇게 써여진다. 하지만 ‘1번’ 항목을 굳이 교과목의 지식, 똑같은 학습법에 치우쳐서 적을 필요는 없다.
- 자기소개서는 ‘1번’ 뿐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모든 문항에서 그 학생의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1번’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어떻게 공부를 했나’ 는 아닐 것이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아도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도 잘 적응해서, 학업에 매진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묻는 것일 것이다. 물론 성적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도 이것의 한 사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자신이 '학습'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등을 적는 것이 더 독창적이고 효과적이다.

7.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이드)를 최대한 활용하자.

고교생활가이드북, 대학 신입생을 위한 대학(학과)생활가이드북

-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이드)는 학생부 종합전형 소개, 전형방법과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합격자의 면접 점수, 지원자의 내신성적 분포와 합격자의 내신성적 분포, 지역별 지원자와 합격자 수, 지원자와 합격자의 재학 고교 종류,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대학의 의견,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사례와 팁에 대하여 충분할 정도로 이해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분명 힌트가 숨어 있으니 지원 대학의 안내서(가이드)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안내서(가이드)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 학생 자신이 합격을 바란다면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입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수험생으로서 반드시 가져야할 마음가짐이다.
- 안내서(가이드)를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들은 학교(교사),

부모님, 친구들에게 묻거나 동네의 학부모, 대학 재학생의 도움을 받거나 대학입학처, 입학사정관들에게 전화나 방문하여 상담 받는 등 궁금증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된다. 즉, 팔을 뻗으면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쥌 수 있다. 팔을 뻗는 것이 힘들 뿐이다.

- 처음 자기소개서에 도전해서 시작이 막막하고 어려운 경우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이드)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의 경우는 다른 대학 지원자들도 참고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할 정도다. 같은 라인의 대학뿐 아니라 위 또는 아래 라인의 대학 안내서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 한 대학에서 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이드)는 그 대학뿐 아니라 다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경우 지원 대학의 안내서(가이드), 안내서(가이드)를 발간한 대학들의 안내서(가이드)를 모두 참고하면 훨씬 수준 높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얻어 작성하고 퇴고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8. 검토(첨삭)을 도와줄 멘토는 많아야 3명 정도(이내)로 충분하다.

- 자기소개서 검토(첨삭) 경험이 많다면 1명과 퇴고까지 도움을 받아도 충분하다.

▶ 원래는 저보다 한 살 위의 도와주던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와 함께 한 달 동안 자기소개서를 수정했어요. 담임선생님과 추천서를 써주신 윤리 선생님 또한 몇 번씩 읽어주시고 첨삭해주셨지만 대부분은 그 언니와 했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업 막바지에서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감 날짜가 다가오고 조급한 마음에 이모며 다른 선생님이며 타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소개서를 들이밀고 첨삭을 부탁한 거죠.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결과물을 인정받든 수정을 받든 어쨌든 뭔가의 피드백을 받아야 더 완벽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글을 봐도 그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았는데 막바지에 다섯 분 정도의 지인들께 1번 내용을 검사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말 다섯 분 모두가 다 다른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바람에 어느 장단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또 정체가 있었습시다.

▶ 말이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결국 제가 이 장황한 경험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은, '첨삭은 받을수록 좋긴 하지만, 대신 첨삭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을 수록 좋지만은 않다'는 점이에요. 외려 글을 적으시는 데에 혼란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 안 그래도 예민하고 피곤한 시기에 다방면에 글로 휘둘러 채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실지라도 첨삭을 받을 분은 많아야 세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으면 각 멘토분들이 원하시는 수정의 방향, 내용 등이 모두 관이하게 달라져서 혼란스러워지실 거예요.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기간 내 그리고 서류접수 마감 직전까지도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다. 자기소개서 검토(첨삭)을 도와줄 선생님을 정했다면 계속 상담하면서 쓸 내용을 정하고 피드백을 계속 받아나가는 것이 좋다. 선생님이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조심스럽지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 평가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제 3자의 입장에서 평가해 보는 것도 좋다.

- 고치면 더 이상해 질 것이란 생각은 일절 할 필요가 없다. 고쳐서 더 이상해진 내용이나 문장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검토(첨삭), 수정으로 엉망이 되었어도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두고 아무리 촉박해도 이유를 분석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

- 자기소개서를 시작할 때는 몇 번이고 완전히 다시 적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몇 십번이든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고치는 것을 절대 망설여서는 안 된다.

- 자기소개서 초안을 완성하면 먼저 부모님께 한 부를 복사해 드리고 자신이 한 문장씩 읽으면서 한 문장마다 부모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친구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문장마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검토(첨삭)이 될 수 있다.

9. 자기소개서에 너무 ‘진’을 빼지는 말아야한다.

-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내신성적, 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모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들이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항목이 중요하다라고 확실히 답하기는 사실 어렵다.

- 자기소개서를 쓰는 중에 쓸 것들이 떠오르지 않거나 더 이상 쓰여 지지 않으면 하루정도는 자기소개서를 접었다가 지난 후에 다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생겨 조금이나마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고 다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거나 앞서 적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떤 날을 정해 한 번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작성되어 지지도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하루에 몇 시간을 쪼개어 할애하면 먼저 쓴 글들을 수정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았던 생각이나 새로운 경험들이 떠올라 구체적인 활동을 더 상세히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 Quality가 높아지고 자신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독창적인 자기소개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1학년 2학기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과학 성적을 받고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학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2학년 때 참가한 교내 과학 활동인 골드버그 머신 창작은 제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골드버그 머신 창작은 복잡한 경로를 통과한 쇠공이 딱따구리 모형을 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머신을 설계할 때 쇠공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에너지 전환 원리는 1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개념 암기만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과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주변 환경에서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은 과학 성적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자갈길을 맨발로 달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자갈길을 맨발로 걷는 것은 두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의미를 찾아서 걷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굳은살이 생기고 보다 험난한 길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골드버그 활동이라는 낯선 길을 걸으며 얻은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접할 때 두려움보다 흥미를 갖고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어려웠던 과학 개념을 쉽게 이해한 뒤로, 과학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예전이라면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도 없는 내가 할 수 있을까?’하고 망설였을 교내 ‘과학 탐구 토론’과 ‘생명과학 토론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과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위권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골드버그 활동을 통해 단순한 물리 역학의 법칙을 넘어 학습에 대한 저의 태도, 나아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과목에 대한 학습 의욕과 향상된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접하게 될 어렵고 새로운 학문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의미를 찾아 도전하여, 끊임없이 발전하겠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은 제외하되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3가지에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교내 봉사 동아리 '3G' 활동을 하면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웃들과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1학년 사회 과목의 불평등 현상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김해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관심이 생긴 저는 지역 복지 센터에 문의하여, 김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독거노인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 회현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절대빈곤의 사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학교 친구들을 모아 회현동 독거노인들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인 우리(Girls)와 노인(Grandmother, Grandfather)이라는 단어를 묶어서 '3G'라는 이름으로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3G처럼 느끼고 서투르지만, 마음을 다해 회현동 독거노인 분들과 함께하자는 의미도 가집니다. 활동 준비를 위한 토론을 진행하여, 그 분들은 일방적이고 단발적인 도움이 아니라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목표로 '어르신들과 가까운 관계 맺기'를 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찾아 뵈 때마다 손녀가 온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하루는 한 할머니께서 잠을 자지 못해 어두운 제 얼굴을 보고, 낮잠을 자고 가라며 이불을 펴주셔서 당황한 경험도 있습니다. 저를 반겨주시던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떠올릴 때면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웃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따스함이 생각납니다. 할머니와 저는 만남을 쌓아가며 따듯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따듯한 불씨를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교내 자치법정 동아리 활동을 통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2016년 1회 자치법정 날'에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과별점 학생이 법정 당일 갑작스러운 증인을 요청하였는데, 증인도 자치법정에 회부된 과별점 학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일부 동아리 부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과별점 학생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 과별점 학생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수용할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과별점 학생도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편이었습니다. 결국 당일 법정에서는 일단 과별점 학생을 증인으로 인정하고, 재판이 끝나고 이 사례에 대해 추가 토의를 했습니다. 격렬한 토론 과정에서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면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즉, 과별점 학생이 규칙을 어겨 자치법정에 회부되었다 해도, 동시에 앞으로는 별점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생으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칠판지우개도 앞면만 보면 회색 플라스틱일 뿐입니다. 뒷면을 봐야 비로소 하얗게 묻은 분필 가루를 통해 그것이 칠판지우개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듯,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다양한 면모를 함께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2학년 4월의 체력평가 날이었습니다. 진행 로서 오래 달리기 전 인원수를 확인할 때 한 명이 없었습니다. 없어진 친구는 운동장 벤치에 있었습니다. “왜 모이지 않았어?” 하고 묻자 그 친구가 답했습니다. “내가 느리게 뛰면 방해된다고, 빨리 뛰면 잘난 척한다고 화낼 거잖아. 안 뛰고 싶어.” 그 친구가 학생들에게 가진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제가 지켜본 그 친구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학생들도 그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다가가 일상에 관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는 작은 고갯짓으로만 반응했지만, 차츰 달라졌습니다. 무심하기만 하던 그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 많아지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곧 점심을 같이 먹으며 잡담을 할 만큼 친해졌습니다.

2학년 마지막 날, 그 친구는 제게 5월까지 자퇴를 고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인기피증 때문에 단체 활동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인기피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3학년 때도 뒷자리를 고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랑 얘기한 건 재미있었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살짝 지은 미소 위에, 학기 초반 시종 무표정하던 모습을 겹쳐 보았습니다. 조곤조곤 과거의 상처를 얘기하는 그 모습은 타인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던 3월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복도에서 종종 마주치는 그 친구 옆에는 새 친구가 있곤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벽을 극복하고 세상에 나서려는 그의 발차기를 볼 때면, 그 친구가 가지게 된 용기가 느껴져 기쁩니다.

이전까지는 누군가 혼자인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곤 했던 그 친구도 일상의 대화에 즐거움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보며, 인간에게는 누구나 관심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넬 것입니다. “안녕, 옆 자리에 잠깐 앉아도 될까?”

4.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나 지원자의 교육환경(가정, 학교, 지역 등)이 성장에 미친 영향 등을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1,500자 이내) 연세대학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에서 남긴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점처럼 모인 과거가 하나의 선, 면이 되어 인생이 된다는 의미로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저를 형성하는 비중 있는 점 하나는 아토피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토피로 인해 눈에 띄는 피부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 피부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친구로부터 받은 한 통의 생일 편지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생일 축하와 함께 고마움을 표시하며 이유를 전해주었습니다. ‘예전에 팔의 상처를 보고 이유를 물어봤을 때는 모기 때문이라고 했어. 그런데 며칠 전에 네 목의 상처에 관해 물었을 때는 웃으면서 아토피 때문에 그렇다고 해줘서 고마웠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힘든 부분에 대해 자연스레 얘기해주는 걸 보고, 비로소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아토피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콤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콤플렉스를 극복한 후, 그 친구처럼 내적인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만의 틀에 갇힌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 속에 갇힌 채 사는 사람들이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이 점이 되고, 그것이 선으로 모여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줄 아는 단단한 사회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꿈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제게 떠오른 해답이 ‘철학’이었습니다.

환경과 기술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매 순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철학이 속한 인문학 분야는 그 발전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3학년 생활과 윤리 과목을 공부하던 중, 보이지 않는 철학의 발전이 실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과제로 조사했던 여성 커리어에서의 ‘유리천장’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 과학자들의 실험에 인권이나 동물권이 논의의 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 또는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들의 배후에 인문학의 발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의 발전이란, 단순히 사상가들이 많아지고 그들만의 학문이 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점점이 모여던 어느 순간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이라 깨닫기 힘든 건 아닐까? 라고 느낀 순간, 철학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에 진학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철학이 가진 힘에 대해 공부한 후,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서툴게 첫 걸음을 딛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발전된 미래로의 변화를 주도할 선의 일부가 되기 위해 갈고 닦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연세대학교를 빛낼 하나의 ‘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V. 자기소개서(Ⅱ)

학교생활의 교과와 비교과활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배우려 했고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공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게 될 것이며 체화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추천서)에서 빛을 발휘하게 된다.

● 일반고 학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 3월까지 초안 완성, 그리고 8월까지 계속 수정, 삭제, 추가하면서 9월에 미세한 부분 수정하여 제출하는 긴 여정의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내용에 충실도를 높일 수 있다. 2학년까지 2년간의 학교생활기록부가 관리된 학생이어야 한다.

- 3학년 1학기의 활동내용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2년간 이어진 활동 또는 1년간 이어졌거나 이어지는 연속 또는 연계활동의 지속성이며 우리의 입시체계에서 3학년은 내신 성적과 수능에 집중하는 시기로 비교과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지만 이들 학교도 학생부종합에 전념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다.

- 일반고는 2년간의 활동 내용으로 충분하며 부족한 활동을 채우기 위한 연속 또는 연계 그리고 추가적인 활동으로 자기소개서 소재를 부각시킬 것이다.

- 일찍 시작하면 수능공부와 3학년 내신성적 공부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학생 자신의 인내력이 중요할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위한 시간은 토요일에 논술 공부하듯이 2~3시간 정도면 충분하며 나머지 시간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을 계획에 의해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우선이며 그 다음이 자기소개서다. 2년 반의 노력해 온 학교생활기록부가 몇 달 만에 써여 지는 자기소개서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2년간의 활동이 입력된 학교생활기록부로 자기소개서 소재를 찾은 후 추가, 보완, 연계, 연속적인 비교과활동과 2년간의 내신성적을 결정짓는 3학년 1학기 내신성적이 비교과활동에 우선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 자기소개서는 언제 써야하나

- 정답은 없다. 개인차에 의해 자기소개서(추천서) 작성 시기는 다양하지만 특정시기에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되기 전의 2월부터

3학년이 시작되는 3월부터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후

3학년 여름방학부터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완료되고 원서 상담이 시작되는 8월부터

수시전형 원서 접수로 원서 상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9월부터

수시전형 지원 대학(학과)를 확정 또는 미정인 상태에서 원서 접수 기간

수시전형과 대학(학과)를 최종 확정하여 원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수정기간

-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해 봤던 재수생들과 수시전형의 내신성적이 확정되는 여름방학 즈음부터 수능공부에 집중하기 가장 좋고 중요한 때가 된다. 재수생들은 논술준비로 재학생들은 내신성적이 확정되었다는 기분으로 조금씩 들떠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분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으로 연장되면 논술 및 수능공부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다.

- 자기소개서(추천서)작성은 효율성면이나 논술 또는 수능 공부면에서도 자기소개서는 2학년 겨울방학 또는 3학년에 올라와서 준비했던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상관없이 7월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에서 여름방학의 초입인 7월말까지 또는 8월 개학 후부터 원서접수 기간 시작 또는 접수기간과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까지에 초안 작성, 첨삭, 퇴고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 자기소개서(추천서) 입력 기간이 원서 접수 후 여유가 있다면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학(학과) 결정, 수시모집 전형 결정, 자기소개서 작성, 첨삭, 퇴고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수험생(재학생, 재수생) 중에는 처음부터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염두에 둔 학생들도 많지만 대학(학과) 지원 상담에서 결정되거나 원서접수기간에 갑자기 지원할 전형을 바꾸거나 바뀌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이럴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하여 작성하거나 자기소개서 수정기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모든 전형에 대한 준비는 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인해 지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아예 손 놓고 있다가 급하게 시작하면 막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쓸지는 틈틈이 생각해놓아야 한다.

(4)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할까?

- 3학년이 되면 교실 안과 밖,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상담에서 교과전형과의 입시결과에 의한 내신성적 비교, 대학 또는 학과에 대한 욕심들이 자기소개서를 써 볼까하는 마음을 가지게 유혹하는 시기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 이 시기가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교내대회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막상 작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학교생활기록부를 들여보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 온라인 또는 졸업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몇 개를 참고로 읽지만 대학, 학과, 진로가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맞지 않으면 어떤 소재를 글감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분명 어떤 소재를 글감으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흐름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글쓰기를 제대로 한 학생들도 글감을 정해 어떻게 풀어나갈 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작업인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감으로 풀어나간 흐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마음만 있을 뿐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막상 쓰려니 눈에 띄는 활동이 없거나,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거나 시키는 것만 하거나 남들도 좋다는 것만 하다보니 개성 있는 활동이 없다는 기분이 많이 들 것이다.

-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모두가 다 한 활동이거나 활동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그런 활동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결과물이 없을 수 있다. 모든 학생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한 같거나 비슷한 활동, 그냥 평범해 보이는 활동에서도 자신만의 특별함, 강점(장점), 차별화 할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자기소개서 공통문항과 대학별 자유문항의 질문내용을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대학들이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어도 아직도 이 질문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학교생활기록부의 결과만을 갖고 작성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다.

- 여기서는 일찍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자기소개서의 'Quality'를 높이고 부족하거나 연계활동을 3학년에서 활동을 추가하여 풍요로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사례다.

- 멋있고 잘 썼다는 평가도 받고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자기소개서 작성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3학년 1학기부터 수능 시험일까지 균형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가

- 일반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성적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 평가요소로 대학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 내신성적 다음으로 비교과활동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것 역시 중요하며 다양한 글감 소재가 있으면 좋지만 사소한 스펙이라도 글감 소재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결과물이 우수한 활동이나 남들보다 잘한 활동만이 우수한 글감 소재가 될 수 있지만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진심을 담아 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글감 소재가 된다.

- 요즘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활동만 기재하게 되어 있고 글감 소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느낀 점이 매우 중요해졌다.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쓰라는 항목에서 굳이 높은 등급의 상이 아닌 낮은 등급의 상이어도 된다.

- 낮은 등급의 상을 받았는데도 글감 소재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낮은 등급의 상을 받게 되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점을 명심하고 잘잘못을 따져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결과물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심에 두고 교내활동의 느낀 점을 솔직하게 풀어나간다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가장 잘 썼다는 뿌듯함을 가지게 된다.

㉮ 가독성의 의도

- 전입입학사정관, 위촉입학사정관(교수)들은 엄청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짧은 시간 내에 읽고 평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가독성이 될 것이다.

-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이 잘 안되면 읽혀지기 어렵다. 글을 쓸 때는 늘 남이 읽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문적인 용어나 어휘, 생소한 표현을 쓰는 것보다 일관된 문체를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등학생의 사고와 글쓰기 수준이라면 친구, 선생님, 부모님에게 하듯이 말하는 어투로 글을 쓰는 것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반드시 구어체로 된 문장을 문어체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 학교생활기록부와의 일관성

-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과 활동내용이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여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다.

- 관련된 학과와 다른 학과로 지원하게 된다면 어떻게든 진로가 바뀌게 된 계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찾아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 부분을 드러내야 하며 두 학과 간의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 본인의 소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안과 밖에서 컨설턴트, 담임선생님, 다른 선생님들과 여러 번의 첨삭을 통한 피드백을 하거나 받게 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 자기의 글을 읽는 전임입학사정관, 위촉교수사정관들도 글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것 보다는 자신의 글로 다시 풀어쓰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쓰고자하는 방향에 최대한 맞추면서 첨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1. 자기소개서 틀 잡기

-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기간에 자기소개서를 써보려고 시도했다면 부지런한 학생이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에 대한 공부만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다.

- 2학년 겨울방학 때인 1월에 시작하여 2월에 초안을 완성시켜도 된다. 그러나 이때는 써보려하지만 쓸게 별로 없거나 쓴 것들이 보잘 것 없어 보인다.

-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우선 자아정체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신의 장.단점과 강점,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자신을 한 줄로 정의해 보는 것이 좋다.

-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컨셉으로 잡는 것도 좋다. 자신이 한 일 중 인상 깊은 활동들을 찾아서 글감 목록표를 만들어본다. 지원 학과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자연계열에서 영어 동화 작성, 인문계열에서 수학 동아리 활동을 적어도 상관없다.

- 이 두 가지 활동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인상 깊은 일을 써본다. 동아리활동을 같이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기억들을 상기시키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활동에서 드러낼 수 있는 장점 중에서 자신의 강점을 쓴다.

- 수학동아리활동에서 동아리부장 활동으로 글을 풀어나가면서 리더십, 학업역량, 협동, 설계력 등을 강조할 수 있다. 네 가지 역량을 중심으로 활동을 쭉 나열한 후 자신이 고르거나 친구나 선생님에게 골라달라고 부탁해도 좋다.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별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뽑으면 된다. 동아리활동을 함께한 친구들의 도움은 절대적이며 또한 지도선생님과도 그 당시를 회고할 수 있고 기억나지 않던 활동들을 함께 찾아내는 것은 글을 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그렇지만 뽑을 활동이 없을 수도 있다. 상관없다. 3학년 때 이런 활동들을 하면 된다.

- 자기소개서 내용이 전부 3학년에서 한 활동으로 채워진다면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학과에 지원을 위한 스펙을 쌓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 정도의 활동은 3학년 활동으로 써도 상관없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를 일찍 쓰는 장점이며 최근 권장하는 이유다.

-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3학년 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는 우선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분량과 관계없이 최대한 쓴 다음에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바로 이 점도 일찍 시작하는 장점이다.

- 접수 마감 한 달 전부터 시작하면 처음부터 글자 수나 분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활동 내용을 쓰기 힘들고 결과를 나열하거나 자랑하는 형태의 글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2. 자기소개서 수정하기

- 3학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이다. 초안은 이미 작성되었으니 수정하는 단계다. 검토(첨삭)받을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나 친구 한 둘 아니면 학교 밖의 이미 진학한 학생들의 학부모, 또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이나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을 찾아도 된다. 첨삭(검토) 인원이 많을수록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첨삭(검토) 인원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더 드는 첨삭(검토)으로 따라가면서 최종 첨삭(검토)받을 사람으로 정하면 된다.
- 수정하는 기간에 자기소개서 내용이 확확 바뀌고 몇 시간 사이, 하루 만에 다른 활동으로 바뀌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 이 기간은 3학년 1학기라 내신성적과 수능 준비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들이는 시간은 많을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에 2~3시간 정도 할애하고 학교시험은 준비가 시작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소개서는 잊어야 된다.
- 또한 수업시간에도 머릿속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토요일에 할애된 시간 내에서만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시간이 되면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집중력, 자신의 계획에 대한 실천력, 자기주도적인 면이 부족하다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학년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중에서 내신성적의 향상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다. 1, 2학년의 학교활동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내신성적과 수능성적을 위한 모의고사 준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3학년 1학기 시험이 모두 끝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8월내에 끝나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되지만 수능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수정은 첨삭(검토) 받는 시간외에는 머릿속에 담아 두면 안 된다. 이미 정시를 버리고 수시에서 하향, 안정을 확보하고 지원한다면 자기소개서에 집중하면 된다.

3. 자기소개서 마무리하기

- 고등학교 3학년 8월에서 9월 서류접수 마감 전까지다. 이제는 수정할 부분도 예전처럼 많지 않고 어느 정도 글이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이때는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통째로 뒤집기보다는 조금씩 수정하여 가는 것이 좋다. 8월까지 수정을 완료하고 9월 원서접수 시작쯤에서 완성시켜야 한다.
- 일찍 시작했거나 8월부터 아니면 9월에 들어 시작했던 초안을 수정하면서 완전히 통째로

수정하고 9월 원서 접수 마감이나 서류마감 직전까지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지 못해 원서는 접수해 놓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히 또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도 내용을 흐트릴 수 있어 자신이 몇 개월 동안 써놓은 자신의 글을 믿어야 한다.

- 이 계획에 의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다면 얼추 완성되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작성해 나간다면 누구보다도 멋있고 개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멋있게 쓴 것도 아니고 잘 쓴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솔직하게 쓰여진 점을 인정받을 것이다.

4. 자기소개서 문항별 작성

-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1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 처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 문항의 질문을 보면 ‘어, 내가 무슨 활동을 했지’, ‘배운게 뭔데 느낀 점이라니’, ‘공부한 것이 노력이고 경험인가’, ‘교과서보고 문제집 풀고 암기하고 계산하고 이게 노력이고 경험인가’, 그러면 느낀 점은 ‘공부가 힘들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 온 건데 느낀 점이 있나’ 등 깊게 한 숨만 나오고 괜히 자기소개서 쓸려고 했나 고민하게 된다.

▶ 1번 문항은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물으면서 질문 내용인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포괄적이면서도 어떤 것을 써야할지 감이 안잡히고 막막할 것이다.

▶ 일반고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와 달리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일반고 학생들은 정말 뻥한 내용 밖에 쓸게 없을 것이다.

▶ 1번 문항은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해야 한다.

- 첫 번째, 자신만의 독창적인 공부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학습 능력과 성장

- 두 번째, 자신이 관심을 가진 한 분야에 대해 깊게 탐구한 과정과 결과

▶ 첫 번째는 정말 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일반고 학생들은 매일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숙제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공부법을 개발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공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공부법은 다 같을 수 밖에 없다.

▶ 그래도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부법에 이름을 붙여 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독창적인 것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보통 대부분이 하는 방법의 공부법은 남들과의 차

이점이 없으니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최근까지도 이 내용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대부분으로 지금도 작성되고 있지만 교육과정의 평가내용에 의해 수업시간에 수업활동으로 채워져 두 번째 내용으로 변했다.

▶ 두 번째는 관심 분야에 대해 깊게 탐구한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내용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작년부터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의 1번 내용이다.

▶ 즉, 공부 방법에 의하여 성적향상이라는 내용에서 탐구한 과정이 적힌 학교생활기록부 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주목하게 되고 글감도 여기에서 찾아 쓰고 일반고도 수업시간의 활동이 보고서, 발표로 일부 과목이 변했기 때문이다.

▶ 웬만하면 특이하고 개성을 강조할 수 있어서 좋은 글감이 된다. 문제는 쓰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 보고서 작성 제출과 수업시간 발표가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수행평가로 짧은 시간의 보고서 작성을 위한 탐구과정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글감이 되게 이끌어 내야한다.

▶ 뿌리혹박테리아의 질소고정에 대한 흥미와 영어탐구 경험을 주제로 1번을 작성하였다. 단일 경험으로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글자 수를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질소 고정에 대한 흥미
교과서의 내용을 넘어서 생물학 → 전공 책을 찾아보며 과정을 깊게 탐구 → 수업시간에 개인적으로 발표 → 실제로 콩을 키워보며 뿌리혹박테리아를 확인 함.
영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함
전공 분야 영어로 발표 → 국제 이슈 영어로 토론 → 영어 에세이 작성 → 세계 인재로의 발판 마련
▶ 엄청 대단한 것이 아닌 1번이 그만큼 쓰기 어렵고 쓸 만한 내용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 1번은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가장 힘든 내용으로 가장 나중에 작성하고 어떤 내용으로 쓸지 구상을 계속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글감을 찾아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탐구 과정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짧은 발표시간에 느낀 점을 드러내기란 어렵다.

▶ 많은 학생들이 1번 문항에 대해 흔히 알려진 틀을 쓴다. 바로 ‘명언’ 제시법이다. 제시한 ‘명언’에 맞추어 경험과 탐구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는 틀이다. 이 틀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은 많지 않다. 한 때 유행한 적도 있다.

▶ 이 틀에 맞추어 작성하면 조금은 수월하게 쓸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명언’이 급조된 ‘명

언'이거나 이미 너무도 많이 사용되었거나 대부분이 떠올릴 수 있는 '명언'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강조된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난 자신의 특징을 '명언'으로 써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흐름이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바로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 명언이 등장하는 필연성이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못하면 글의 통일성도 안 맞고 억지로 짜 맞추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학생이나 그들처럼 활동내용은 많아도 1번 문항 작성에 글감으로 남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동내용의 과정이 끝나거나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요약해 놓는다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다.

• 1번 문항은 다니는 학교를 떠나 모두에게 활동내용이 많던 적던, 수준이 높던 낮던 글감을 쉽게 찾던 아니던 찾은 글감으로 글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 것이다.

▶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길은 사람이 지나다녀야 만들어진다.’-”장자“
내가 걸어가야만 나의 길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자신의 장점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점을 강조했다.
1학년 겨울방학 때 이 고사성어를 접한 이후 이를 좌우명으로 정해두었다가 2학년 자신의 “명언” 발표시간에 이 고사성어를 발표했었다고 자기소개서에 썼다. 평소에 ‘장자’와 관련된 책과 동양철학관련 책을 많이 읽고 독서상황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고사성어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필연이란 바탕을 만들어 놓았다.

▶ 일반고 학생들에게 1번 문항은 제일 쓰기 힘들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3학년 3월부터 여기에 대해 구상해 보는 시간을 틈틈이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 자기소개서 문항 중 가장 글자 수가 많지만 다 채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글자 수가 많아 줄여야 한다는 걱정이나 부담은 없다. 그러나 3개를 모두 쓴다면 하나의 활동에 글자 수가 500자로 글자 수를 맞추기 만만찮은 문제점이 있다. 2개 정도를 쓴다면 쓰고 싶은 말들을 모두 넣을 수 있다. 학생에 따라서는 쓰기에 쉽지 않지만 가장 쉬운 문항일 수 있다.

▶ 쓸 글감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리더십, 봉사관련 활동은 3번에서 쓸 수도 있으므로 2번과 3번 문항에 대한 글감을 3~4개를 골라 그 중에서 하나를 3번으로 적으면 나머지 활동은 2에 배치하면 된다.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글자 수가 많아지면 3번, 적당하면 2번으로 정하면 된다.

▶ 2번 질문과 3번 질문을 보면 3번은 질문에 특정 영역을 제시해 놓았고 2번은 그렇지 않다는 것 외에는 학교생활 중에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과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멘토링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신성적 항목 외 모든 항목에서 글감을 찾을 수 있다. 2번과 3번은 함께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 2번 문항의 질문 내용은 평소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난 나의 장점과 강점을 잘 드러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일 것이다. 그래야 자신의 인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능력들이 균형을 맞추어지게 한다. 단점을 보완할 활동이 없다면 단점이나 약점은 버린다. 아마도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할 것이고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보완할 강렬한 활동이 있지 않다면 어설픈 단점이나 약점을 보완했다고 써 놓아도 드러난다.

▶ 만약 학교생활기록부에 전공적합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면 전공적합성을 돋보이게 하는 활동을 3학년에서 하여 자기소개서에 넣어둔다면 어느 정도는 부족함을 없앨 수 있다.

▶ 전공적합성이 충분히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론에 치중되어 있고 실제 생활에서 이를 활용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몇 번 이내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는 이론뿐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전공에 열정을 보였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

▶ 그러나 전공적합성을 억지로 보일 필요는 없다.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과목이 글감이라면 좋겠지만 연관성이 약하거나 없는 과목이라도 학업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쓰고 나열식이 되면 인과관계를 분명히 한 후에 구체적(실 사례)으로 적는다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이 자연스레 드러나도록 글을 쓸 수 있다.

▶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충 설명하고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은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 먼저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급의 친한 친구에게 이를 부탁해도 좋다. 글감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내가 리더십이 뛰어나면 전공적합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 창의성은 뛰어나지만 생각만 가지고 실천한 경험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3학년에서 보충활동으로 보완해 놓는다면 학교생활기록부가 풍성해 질 것이다.

▶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나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 중에서 2번과 3번의 질문내용에서 자신이 의미를 부여했던 가장 인상 깊었거나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굵직한 활동들을 골라 나열해 놓는다.

▶ 자율활동, 전공적합성, 실천, 리더십, 3번 문항 분야 등 자신이 필요한 제목을 달아서 정리하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 보인다. 이런 활동을 3~4개 고르거나 안 되면 2~3개를 골라내면 된다. 지원 학과와 관련 없는 활동이라도 상관없다. 2번 문항의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보이고 활동을 풀어내는 능력이다.

첫 번째, 2 가지 활동을 적는 경우

두 번째, 3 가지 활동을 적는 경우

세 번째, 1 가지 활동을 적는 경우

•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다.

• 두 번째의 3 가지 활동을 적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활동을 2개 적어도 상관없다. 예를 들면 환경 주제로 2개, 동아리활동으로 1개를 적거나 동아리활동으로 2개,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으로 1개를 선택해도 된다.

• 2번에 적을 활동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내는 것이 무척 어렵지만 연결만 시키면 1번, 3번, 4번을 포함하여 자기소개서 전체 문항의 내용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최적화시킬 수 있으며 매우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되고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2 가지라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보기 바란다. 활동들이 따로따로 노는 느낌을 주게 되면 스펙을 위한 활동으로 읽혀지기 쉽다.

• 활동내용은 우선 자신이 돋보여야 한다. 단체활동이라 해도 자신을 강조해야 한다. 자신의 역할을 적고 자신의 활동을 강조한다. 활동 위주보다 느낀 점 위주로 쓴 후 추후 활동내용이나 변화된 점을 써는 흐름도 좋다.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야 한다. 글을 적다보면 과장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진정성으로 쓴 내용을 침삭할 때 조금은 과장해도 처음 쓸 때부터 절대 과장해서는 안 된다.

•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감정표현이 부족해 미사여구나 감정표현 없이 사실 위주의 표현으로 글이 딱딱해 지는 경향이 있으니 혼자 있을 때 감성적인 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해지는 시간대를 골라 써보는 것을 권한다. 특히 새벽이라면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고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라 혼자 고요한 시간 속에 있다면 감성이 풍부해 질 수 있는 시간이다.

• 2번 문항은 한 가지가 아닌 2~3가지를 적기 때문에 분량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된다. 3가지를 쓴다면 500자밖에 못쓰며 띄워 쓰기를 포함하면 글자 수는 300자 내외밖에 안되어 활동에 대하여 제대로 적지 못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쓰면 금방 1,500자를 넘어버린다.

• 또한 문항은 활동에 대한 소개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들로 인하여 이것을 설명하면 글자 수가 넘어버리고 그렇다고 설명을 빼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소개가 되어 있다면 한 문장 정도 아니면 빼고 적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다.

-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 평가의 보조서류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글감들에 대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확인하고 있다.
- 글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활동 내용을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3가지를 써도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가지로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적는 것이 좋다.
- 세 번째의 경우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이 적혀 있는데 굳이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반드시 2~3가지를 골라야 할 필요는 없다. 분명 자신있다면 문항 질문도 3개 이내이면 1~3개 사이에서 적어면 된다.
- 그렇지만 대학에서는 2년 반의 학교생활에서 의미 있었던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의문이 들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활동들이 스펙쌓기용으로 했는지 의심받게 된다.
- 활동 개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한 것은 더 많이 쓰라고 하면 학생들과 평가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1개씩은 의미 있는 활동을 적는 방향으로 3개 이내로 정한 것이니 1개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1개를 적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서류를 통과하면 면접에서 이를 이해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없는 학생의 활동에 대한 진정성과 느낀 점이므로 자기소개서에 이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 인성과 관련된 문항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3번 문항 작성은 2번 문항 작성과 동시에 할 수 있으므로 2번 문항 작성을 참고로 작성하면 된다.
- 3번은 힘들다거나 걱정하는 학생을 본 적이 거의 없다. 나름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꽤 많은 글감들이 많다. 학교생활이 바로 위의 네 가지 주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부대끼는 삶의 환경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협력하고 갈등이 생기고 나누고 배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3번 문항을 가장 먼저 채우게 되며 글자 수나 내용도 수정할 것이 거의 없어 완성도가 훨씬 높다.
- 자기소개서 작성은 1번이 어렵다면 2번(3번) → 3번(2번) → 1번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다. 4번은 대학자율문항으로 대학 중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고 1, 2,

3번을 적으면 동기 부여가 되거나 이 대학(학과)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쉽게 써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쓰고 싶을 때 쓰면 된다. 시간과 기간이 중요하지 않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쓴다면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 2번에 동아리활동을 적고 3번에 2번에 적은 동아리활동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리더십, 협력으로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3번에 적는 것이 낫다. 꼭 글감으로 쓰겠다면 2번은 활동에서 과정과 결과만으로 동아리활동에 충실한 부분만 3번은 동아리활동의 전반적인 활동계획과 활동 내에서 부원들과의 관계, 역할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적어도 되지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글감 선정이다.

- 봉사활동도 2번과 3번에 적고 싶다면 2번은 교내활동, 3번은 교외활동이거나 충실한 활동이라면 글자 수가 많은 3번 또는 2번에 활동 수를 줄여 2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자기소개서 대학별 자유문항 4번

- 대학마다 질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마다 쓰는 스타일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과 학과 그리고 인재상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공적합성에 충실하고 진학 의지가 강하다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한국교원대(국어교육), 전남대(역사교육), 경희대(지리-담임추천)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저는 항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잘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즐거는 사람’이 되자는 각오를 다지며 공부에 임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자신 없는 과목, 흥미 없는 과목을 꼽으면 수학은 항상 1순위였고,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수학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저에게 매일의 수학수업은 지루하고 힘겨울 수도 있었지만 수학을 즐겨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에 시간 투자를 훨씬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꾸준한 문제 풀이를 통해 수학과 항상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정이 들 듯, 이전엔 싫어하고 피하기만 했던 수학을 의지를 통해 가까이 하니 수학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체계 하나 둘 씩 수학문제집을 들고 저를 찾아올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문제를 손쉽게 풀어 줄 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지만, 반대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읽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설명하기까지 길게 걸리더라도 책임지고 끝까지 품으로써 저의 실력도 향상 시키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제 자신 또한 성장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 상부상조하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82자) 2017.08.18. 초안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저는 항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잘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즐기는 사람'이 되자는 각오를 다지며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정말 마음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공부계획을 실천하면 성취라는 결과를 얻어야 자신의 존재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라는 힘을 얻어 다시 노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감을 잃고 공부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해 보기로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못되도 노력하는 사람은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자신 없고 흥미 없는 과목은 늘 수학과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매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한 수학수업은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한 번 즐겨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에 시간 투자를 훨씬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꾸준한 문제 풀이를 통해 항상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정이 들 듯, 이전엔 싫어하고 피하기만 했던 과목을 의지를 통해 가까이 하니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아예 수학문제집을 끼고 사는 저를 보고 친구들도 제게 하나 둘 씩 문제집을 들고 오기 시작하면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문제를 손쉽게 풀어 줄 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지만, 반대로 문제가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읽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설명하기까지 길게 걸리더라도 책임지고 끝까지 풀어주면서 저의 실력도 향상되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제 자신 또한 성장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보고 실망하여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고 제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해냈어", "다음에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풀어보는거야"라고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시험점수를 보면 실망스럽고 더 이상 힘들게 공부해도 점수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미리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신을 칭찬하면서 하루 하루를 깨끗하게 수학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서로 주고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각의 차이가 과목을 대하는 태도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958자)

(1,258자-띄워쓰기포함) 2017.08.26. 1차 검토본(1)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교과서가 그렇듯이 국어교과서도 한자표기가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교과서의 내용 밑에 필기하여 시험 문제로 출제되니 교과서에 있는 문장 속의 어휘와 교과서에 필기된 어휘의 뜻을 몰라도 그냥 외워서 답을 찾아내는 식의 공부가 국어 시험공부였습니다.

우리말한자어의 어원을 몰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 어림짐작으로 책을 읽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독서감상문이나 수업시간 발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책을 읽을 때는 충분히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적어 놓은 글을 보면 무엇을 읽었는지 남들이 읽으면 책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친구들의 글을 봐도 그렇지만 저의 글도 남들이 보면 책을 읽다가 그만 둔 것인지 끝까지 읽었는지가 궁금해 할 정도였습니다.

과제 발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할 때 글로 옮기는데 글자수가 너무 많아 읽어보면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찾기 어렵고 정해진 분량을 훌쩍 넘겨 줄이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겨우 분량을 맞추어 제출하고 짧은 발표시간에 발표 내용은 두서없이 주제나 핵심이 없이 겉돌아 교실 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수업에서 한자의 개념과 뜻을 정확히 알고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문을 배우면서 우리말한자어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국어교과서의 우리말한자어를 노트에 정리하고 영어 단어공부하듯이 매일 일정량의 한자를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국어교과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니 암기하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 국어공부가 수월해 졌습니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쉽게 암기도 되니 국어수업이 기다려지고 과제 발표시간은 언제나 기다려졌습니다. 한자를 알게 되면서 언어를 압축할 수 있게 되면서 문장을 쉽고 짧게 쓸 수 있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고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과제 발표, 모둠학습, 조별 토론 때도 한자만 봐도 뜻과 음으로 단어의 뜻을 암기가 아닌 이해할 수 있어 한문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자가 쓰기 어렵다고 기피하지만 한문공부가 국어공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친구들이 한자가 어려워 중국어공부가 힘드니 일본어를 선택할 때 저는 자신있게 중국어를 선택하여 어려운 한문공부에 도전하였습니다.

(939자)

(1,304자-띄워쓰기포함) 2017.08.26. 1차 검토본(2)

(4) 서울대(응용생물화학부/장학생), 고려대(환경생태공학), 서강대(생명과학)

내신 1.72(지방일반고)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저는 이 구절을 가슴 속에 새기고 저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탐구해왔습니다. 생명과학 과목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변의 자연을 감싸는 학문이라는 점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식물의 질소 고정의 원리를 공부하면서 비료 없이도 식물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토양 속 미생물에 의한 질소 고정의 원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강낭콩을 키워보며 뿌리혹을 관찰해보고, 대학 전공 서적을 참고하며 각종 생물이 수행하는 질소 고정의 과정과 역할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현상을 여러 생물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유기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 나아가 친구들 앞에서 이에 대해 발표하고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발표 내용을 조직화하여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보다 심화된 지식을 이해하는 친구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시각적 자료를 준비하면서 미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고자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할 때, 얻은 지식이 제 것이 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원서를 읽고 학술회에서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여 영어 역량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농업과 같은 관심 주제를 영어 지문과 관련지어 발표하며 관심 분야의 국제적인 상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에세이와 영자 신문을 작성해보며 능숙하게 영어로 작문하도록 노력하였고, 국제 이슈에 관한 토의는 넓은 시각을 갖추게 해주었습니다. 이 활동들은 영어 활용 능력을 향상 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재로서의 소양을 쌓게 해주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후 스스로 노력하여 지식을 습득하였다는 자신감과 폭 넓은 지식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은 제외하되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3가지에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

저는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평소에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고 발표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흥미를 바탕으로 2학년 때 ‘그린피스’ 단체를 대표하여 교내 모의 유엔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회에서 저는 대체에너지 사용 장려 방안을 구상하고 이에 대해 각 나라의 대표와 토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장려 방안으로는 기업 별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제품에 명시하는 ‘재생 에너지 사용량 스티커 부착 제도’를 제시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저의 의견은 최종 결의안으로 채택되었고, 제 의견이 실용적인 환경 보호 방안으로서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갖추지 못했던 국제적으로 생각해 보는 넓은 시각을 지니게 되어 환경 이슈를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자하는 제 꿈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환경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환경동아리 000에서 실질적인 교내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고민해보던 중 게릴라 가드닝의 씨앗 폭탄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곳곳에 씨앗이 담긴 폭탄을 던지는 씨앗 폭탄 캠페인을 통해 친구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기로 결심했고, 저는 캠페인 기획을 맡아 학교 특성에 맞는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씨앗 폭탄을 만들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학교 주변의 환경을 자세히 조사하게 되었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껴 나가야 할 존재인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내의 식물에 대해 조사하여 교내 생태지도도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꼭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학년 때 수학 동아리 000의 동아리장으로 활동하면서 열정적으로 동아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동아리의 1년을 스스로 꾸려 나간다는 점이 쉽지 않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여럿 찾아왔습니다. 충북 수학 축제를 준비하던 중 부스 지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낙담하지 않고 대체할 활동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고, 교내 수학 부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기획하였기 때문에 고심 끝에 재미없게 느껴지는 수학의 이미지를 부스를 통해 개선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학의 개념을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수학으로 부스를 구성한 결과 가장 인상 깊은 부스 중 하나는 ‘5를 찾아라!’ 라는 게임 부스였습니다. 할리갈리 게임을 연산 게임으로 변형한 이 게임은 저와 부원들이 고안해내고 변형하였는데, 부원들과 수없이 되풀이 해보면서 적절히 게임이 진행되게끔 수와 연산기호를 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스를 참여한 친구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끝나고 나서도 게임 카드를 교실에 비치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저와 부원들은 이러한 친구들의 반응에 뿌듯함을 느끼고 저 또한 수학의 즐거움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다양한 매체에서 글을 접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면서, 직접 글을 구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학년 때 영어 동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고 특정 키워드를 넣은 이야기는 다 같이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각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단한 이야기들을 모았고, 자유롭게 토의하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갈래의 줄거리가 등장해 이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창의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번역을 맡은 저는 유사한 영어 단어를 찾아보거나 헛갈리는 표현은 원어민 선생님께 가서 여쭙어보는 등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력을 인정받아 저희 팀은 이과에서 유일하게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협력하여 하나의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저는 3학년 때 영자신문 프로젝트에서 편집장을 맡아 협력을 이용한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동안 저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고, 체계적으로 친구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다짐으로 이어져 2학년 때 멘토링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학년이면서 국어에 약한 친구를 어떻게 가르쳐주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육 봉사 경험을 떠올려 가르치려고 했지만 의견 충돌을 빚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선생님의 자세로 가르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멘토링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어를 같이 고민하는 친구로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토의하는 역할로 변화하였습니다. 변화된 방법으로 인해 멘티 친구는 국어에 즐거움을 느끼고 저 또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멘토링이란 친구의 마음으로 서로 멘토가 되어주는 활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배려를 지닐 수 있었고 지식을 나누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서술해주시요. (각 500자 이내)

1.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며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면서 제가 하는 선택이 과연 올바른지 고민을 하던 중 ‘동양의 탈무드 장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한 주요 어구를 다루며 의미를 풀이한 이 책을 통해 옛 성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책의 구절 중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란 구절로부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도 과연 올바르게 나아가는 중인지 고민하던 저에게 이 구절은 제가 가는 곳이 곧 길이며, 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자신을 믿으며 당당하게 하고 싶은 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다채로운 실험과 탐구, 그리고 학교 행사와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관심 과목에서 소인수 수업을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관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현재에 주어진 활동들을 최선을 다해 성취하고자하는 저만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2. 평소 친환경적인 농업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책을 찾아보던 중 이를 실현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기적의 사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의 이야기는 저에게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바라는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의 고충과 노력으로 정말 ‘기적’같은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며 자연 재배를 향한 그의 집념을 느끼고 감동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 의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유기 농업 연구원을 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은 토양 속 미생물과 식물, 토양의 건강 같은 다양한 요소까지 고려해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응용생물학을 전공한 후 식물 미생물학 분야를 연구하여 생물 사이의 생태적 관계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재배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꿈을 심고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3.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현재의 경제적인 이득이 존재할지 고민하던 중, ‘자연이 보내는 손익 계산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환경 보호란 현재에는 경제적인 이득이 미미하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지켰을 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경제적 지표들과 자료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현재의 경제성을 충분히 챙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생태적 요소 하나하나가 생태계에서 서로 연결 되어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넓고 편향되지 않은 시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고 환경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환경 관련 이슈를 조사하여 기사와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나아가야 할 진로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학문을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 속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생태계를 잘 치유해나가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해당 모집단위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고려대학교가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라는 고려대학교 건축물에 새겨진 호상지문의 일부, 그리고 개척하고 행동하는 지성을 강조하는 고려대학교의 이념은 실천을 추구하는 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현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야말로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경에 깊은 흥미를 지니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저의 꿈은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을 떠받치는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유기 농업 연구원을 희망 직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 다양한 독서를 하고, 환경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교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참여하며 제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꿈을 이루고자하는 의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친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급 게시판을 정리하고, 꺼려하는 청소 구역을 맡는 등 공동체를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듯 모두를 위한 저의 배려는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추구로 확장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환경에 대한 애정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학한 후 생물과 환경 사이 상호작용에 관한 공부를 심화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생태학 및 환경생물 전공 분야에서 관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학문을 공부한 후 식물 그리고 토양과 미생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농업 체계를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환경은 없어지거나 망가져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를 이루는 우리 몸의 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발전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며 우리나라의 심장을 영원히 고동하게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4.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해 서술해주시길 바랍니다(1,000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의 개발, 현재만을 위한 발전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만연한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자연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애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분야에 대해 다양한 독서를 하고, 환경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교내 환경을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심으로 인해 저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시카야 다쿠지의 ‘기적의 사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연 재배 농부 기무라 아키노리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방법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읽고 자연을 살리는 농업에 대해 연구하는 유기 농업 연구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여 비료 없이도 식물의 성장 흐름을 고려한 농사를 짓겠다는 포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꿈을 심고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친환경적인 농업 발전을 설계해나가기 위해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입학한 후 전반적인 생명과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식물생리학, 일반생태학과 같은 식물 관련 과목을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토대로 식물은 어떤 단계를 거쳐 성장하는지, 어떤 영양분이 식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며 저는 농업에 필요한 지식을 차근차근 쌓아나갈 것입니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식물의 생리에 대한 연구를 하여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농약과 비료 없이도 농업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제 손으로 증명해보이고 싶습니다.

아직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농업이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유기 농업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㉔) 언제부터 써야하나

- 정답은 없다. 2학년 겨울방학부터, 3월부터 시작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8월부터 시작한 학생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9월 원서접수하면서 작성하는 학생들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하는 시점이나 경쟁이 치열한 대학(학과)에 지원한다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상적인 기간이나 시작 시점은 학생마다 다르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를 일찍 작성하면 할수록 글의 내용과 표현 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3학년 때 추가적인 활동으로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

(㉕) 무엇을 나타내야 하나

- 모든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다. 자신만의 진정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8.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4. 수상경력, 6. 진로희망사항, 7. 창의적 체

협활동의 4개영역, 9. 독서상황의 활동내용을 무시하고 자기소개서로 역전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에 맞추어 평가해 주는 대학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어떻게 쓸까

-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가이드), 대학 수시모집 요강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 대학 수시모집 요강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읽고 해석하면 보일 것이다.

활용 정보(건수)	평가 항목(건수)
독서(39)	전공 역량(18), 전공 적합성(19), 지원 동기(1), 학업 태도(1)
창체 자율(2)	전공 적합성(1), 학업 태도(1)
창체 동아리(14)	인성(3), 전공 역량(5), 학업 태도(6)
창체 봉사(3)	인성(3)
창체 진로(6)	전공 적합성(1), 지원 동기(5)
교과 세특(3)	학업 능력(3)
수상(1)	전공 적합성(1)
자기소개서(18)	인성(3), 전공 역량(12), 전공 적합성(1), 지원 동기(1), 학업 능력(1)
합계(86)	인성(9), 전공 역량(35), 전공 적합성(23), 지원 동기(7), 학업 능력(4), 학업 태도(8)

※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면접 및 구술고사 활용 정보와 평가 항목의 연계성 분석

- 8.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기준으로 다른 학생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반고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소개한다.

① 결과보다 과정을 자신의 진정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쓰라

- 학교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쓰라는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에서는 교내 실험대회에서 금상도 아닌 장려상 받은 것을 쓸 수 있을 것이다. 1등이 아닌데도 쓴 이유는 말 그대로 가장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 장려상을 타게 되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점을 명심하게 되었는지를 순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과정에 중심을 두고 솔직하게 썼다면 가장 잘 썼다는 기억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의 평가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중요한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자신이 쓴 대학이나 학과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 중에서 내신성적도 제일 낮고 학교생활기

록부에서 특별한 장점이나 강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도 합격할 수 있었다면 교내 활동의 느낀 점을 진솔하게 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② 자신을 믿어라.

- 학교에서 담임교사나 그 외 교사들과 한 번 아니면 여러 번 첨삭(검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소개서 내용에 소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고 고집부리라는 것은 아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것은 본인의 글이 아니게 된다.
- 또한 자기소개서를 읽는 입학사정관들은 글의 표현과 내용에서 어른이 쓴 글과 학생이 쓴 글의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기 때문에 첨삭 받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 보다는 자신이 다시 자신의 표현과 문장으로 풀어쓰면서 퇴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하지만 이 말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은 받되, 자신의 소신을 잃지 않고 쓰고자하는 자신이 쓰려는 방향에 맞추어 글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며 첨삭(검토, 피드백) 받은 내용을 자신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다.

③ 중요한 것은 가독성

- 입학사정관들은 몇 년 동안 서류를 평가하고 합격, 불합격의 판단을 해 온 분들로 매년 엄청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짧은 시간 내에 읽고 평가한다는 것은 가독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이 잘 안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남이 읽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생소한 표현을 쓰는 것보단 일관된 문체를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어투로 글을 쓰는 것이다.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에서 대표 사례 문장을 예시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배우려 했고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과학현상들이 일어나는 원리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과학에 더 큰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는 글의 구성이다.

④ 학교생활기록부와 일관성 유지

-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의 흐름이 일치해야 한다.
- 가장 이상적인 일관성은 전공적합성이다. 활동의 일관성에 비추어서 좁게는 학과, 넓게는 계열 또는 단과대학에 맞추어져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과, 계열에 맞추어 적는 것이다.

- 진로희망에는 ㉔가 되고 싶은데 지원학과는 ㉕와 관련된 학과(계열)라면 어떻게 하든지 진로가 바뀌게 된 계기를 나타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여기서 주로 쓰게 되는 방법은 두 진로희망과 지원학과(계열)간의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 자연계열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보건계열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진로희망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인 학생이 자연과학계열(화학과) 지원으로 이미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용한 내용은 '의료행위를 통해 본인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보람찬 일이지만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개발하거나 현존하는 물질의 위험성을 밝혀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자연과학계열(화학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 지원학과가 수의예과가 되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진로가 변한데 대하여 드러내면 된다. 여기에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⑤ 전공적합성을 드러내라, 역지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

- 일반고는 교내활동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내용은 학업역량에 의해 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학교에서 관리대상이거나 나 홀로 교내활동을 휩쓰는 경우에는 전공적합성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 학업역량이 낮거나 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3년의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으려할 뿐 자신의 진로와 인생에 대한 고민 없이 학교(교사)에서 때가 되면 도와 주겠지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내신성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이 어렵다면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를 해 주는 대학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 일반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갖추어놓은 비교과활동에 적합한 계열이나 학과에 지원해야 한다. 전공적합성을 넓게 또는 좁게 파악하여 4. 진로희망사항, 7.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4개 영역, 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별 성적을 연계하여 진로희망을 최대한 살려 드러내게 적어야 한다.

▶ 여기에서 드러내는 내용은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지문을 접하고 양자역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보면서 앞으로의 컴퓨터 발전에 있어서는 물리학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식으로 글을 구성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하지만 위의 내용은 국어 문학 또는 비문학지문, 독서활동에서 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별 성적과 연계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도 있다.

▶ 예체능관련학과(미술, 음악, 체육)도 독서활동, 자율활동이 평범해도 얼마든지 다른 과목과 연결해서 글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

▶ 미디어아트에 대한 글로 시작하여 영상매체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시작하여 공학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글 구성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철학과 미술을 함께 공부했던 학자 이야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철학을 미술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예체능분야, 진로희망분야의 독서활동들은 하나의 분야에서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글을 구성해 나가기에 더 좋은 글감이다.

• 그러므로 8.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9. 독서활동상황, 7.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과 6. 진로희망사항, 추가로 4. 수상경력의 순서로 종이에 도식화 시켜보면 쉽게 글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소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활동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보다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그 비교과활동들을 어떻게 엮어 문장을 구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 자신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을 한 이유, 활동 내용 등을 자신의 생각으로 담아내고 그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적혀있다면 전공적합성이나 지원학과와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학생(학부모)들이 이렇듯 다양한 전공 지식을 종합하여 하나의 탄탄한 스토리로 구성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담임교사, 친분 있는 교사 등 학교 내 교사 중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첨삭을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는 분을 꼭 준비해 놓아야 한다.

• 도움을 주는 분의 자기소개서 첨삭 경험이 그냥 경험이 아니라 매우 꼼꼼하게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평가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준비해 오신 분이여야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분을 찾기 어렵지만 그 중에서 나은 분을 찾아 부탁해야 한다. 추천서도 부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장 큰 도움은 대학 방문상담, 대학입시박람회에서 지원 대학 입학사정관, 지원과 상관없이 그 라인의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거나 학교방문설명회 또는 대학 모의서류평가, 모의면접에 참가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지원 희망 대학이 아니어도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갈 수 없을 때는 지역의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상담을 받아도 된다. 이 도움의 가치는 학교(교사)내의 도움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 학교(교사)도 이들에게서 자료나 정보를 얻어 학생들에게 상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거친 내용보다는 직접 듣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자료나 정보가 될 것이다.

⑥ 일반고 학생의 자기소개서 구성 내용

• 성적 향상을 이룬 학생들은 성적향상과 학습법으로 단순히 등급을 올린 이야기는 매력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말한 ‘이러 이러한 노력을 함.’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학생의 지적호기심과 적극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이 오른 것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남다른 공부방법이나 공부철학 등에

대해 적어야 한다. 낮은 성적에 머물러 있거나 중간등급에서 등락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더욱 중요하다.

- 입학사정관이 이러한 공부방법과 자세 덕분에 성적을 올렸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자기소개서를 소개한다.

○학년 때 도서관에서 수학문제를 붙들고 한없이 시간만 흘러보내다가 1시간 만에 풀어냈을 때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주위의 학생들이 모두가 당황하고 선생님이 놀라 누구냐고 도서관이용 규칙도 모르냐는 질책과 학생들을 웃음소리에 무척 창피했지만, 그토록 몰입한 경험은 짜릿했고,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콤플렉스를 극복하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재밌다,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는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통해 수업시간에 참여하였으며 수업시간 집중과 복습의 결과가 바로 질문이란 것을 실천하고 즐겁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전에 보다 더 노력하면서 공부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중략) 공부가 힘들지만 어떻게 하던 즐겁다라는 마음을 가지고하는 노력은 학업에 임하는 저의 태도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독서를 생활화하면서 학교 수업에서 생겨난 궁금증은 선생님께 질문하여 조언을 구하기도 했으며 대부분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해결했습니다. ○○ 수업 시간에 배운 맹자의 구절이 인상 깊어 동양고전 해설서를 읽으며 고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도 했고, 국어 방과후수업과 심화수업 때 양자역학에 대한 지문을 접하고 물리학 관련 책을 읽으며 지적 열망을 채웠습니다.(중략) 저는 전 시간에 배운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과 동양의 이기론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두 사상을 비교하며 이해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 자주 찾아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방법서설' 등의 책에서 구절들을 발췌하여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뜻밖에도 비슷한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었고 16~17세기에 동서양 모두에서 이원론적 사고가 태동했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냈다는데 대하여 저 자신,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찾았던 내용에 대하여 친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VI. 자기소개서(Ⅲ)

① 교과학습발달상황(8)의 교과별, 학기별 등급과 표준점수(Z-점수)를 산출하여 하나의 <표>로 작성하여 자기소개서 <1>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학업과 학습에 대한 과목을 선택한다. 선택한 과목이 하나일 수도, 여러 개일 수도 있으며 여러 개일 경우는 모두 선택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에서

①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의 소재 찾기 순서는

교과학습발달상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수상경력 → 진로희망사항 →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독서활동상황

② 자기소개서 2번, 3번 항목의 소재 찾기 순서는

진로희망사항 →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 수상경력 → 독서활동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③ 자기소개서 4번 항목의 소재 찾기 순서는

진로희망사항 →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 수상경력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작성을 위한 소재 찾기

과목, 학년, 학기별 성취도 및 석차등급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 성취도(5등급), 석차등급(9등급)

과목별 Z-점수 산출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② 선택한 과목에서 단위수와 중요도에 의해 순서를 정한다. 계열과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로 인문계열은 사회과목, 제2외국어, 한문과목 자연계열은 과학과목 순이다.

③ 순서를 정한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8번)에서 강점(장점)과 나만의 특별함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활동을 과목별로 조사하여 정리한다.

과목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	1			
	2			
수학	1			
	2			
영어	1			
	2			
사회	한지			
	생윤			
	사문			
	한국사			
과학	화 I			
	생 I			
	지 II			
제2외국어				
교양				

④ 교내대회에서 진로, 전공적합성, 과목과 상관없이 수상경력(4번)을 학기, 학년별로 조사한다. 먼저 토론, 발표, 과제탐구보고서에 대한 수상경력을 조사하고 글쓰기관련대회의 수상 경력을 마지막으로 경시대회, 연계과목의 수상경력을 조사한다.

수상경력 = 토론, 발표, 보고서대회 → 글쓰기관련대회 → 경시대회, 연계과목 순서로 조사하여 <표> ③ 아래에 적어둔다.

순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1	토론대회					
	발표대회					
	과제보고서대회					
2	글쓰기대회					
3	경시대회					
4	인성, 진로대회					

⑤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을 학년, 학기별로 정리한다.

동아리활동에서 독서, 실험 등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과의 연계하여 조사하여 정리한다.

⑥ 독서활동상황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동아리활동’과 연계된 도서를 학년, 학기별로 정리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상황’에 있는 도서가 ‘독서활동상황’에 적혀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소재로 활용해도 된다.

항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독서활동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					
자율동아리					
진로상황					

⑦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 위의 항목의 활동 내용 중 강조된 활동내용 또는 새로운 활동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⑧ (예시) 성취도와 석차등급 <표>와 글의 시간적 순서로 학기별 표시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국어 I / II / 문학 / 고전 / 독서와 문법 / 화법과 작문	A(2)	A(2)	A(2)	A(2)	A(2)/A(3)
수학 I / II / 미적분 I / 확률과 통계 / 수학연습 I / 인문 통합수학	A(2)	A(2)	A(1)	A(2)	A(2)/A(1)
실용영어 I / II / 영어 I / II / 영어독해와 작문	A(2)	A(3)	A(2)	A(3)	A(3)
사회	A(2)	A(4)			
사회문화			A(3)	A(3)	
한국지리 / 세계지리			A(1)	A(3)	A(3)
동아시아사			A(4)	A(4)	
생활과 윤리 / 법과 정치			B(3)	B(4)	A(3)
한국사	B(4)	B(4)			A(3)
과학 / 화학 I / 생명과학 I	D(4)	A(3)	A(2)/A(1)	A(1)/A(2)	
기술가정 / 논술	B(2)	A(3)	P	P	
한문 I / 중국어 I	A(1)	A(1)	A(2)	A(1)	

-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성취도와 석차등급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표>에서 소재로 사용할 첫 째, 기준교과로 국어/수학/한문/중국어
둘 째, 기준교과의 보조교과로 수학(확률과 통계)/화학/생명과학
셋 째, 기준교과에 인문계열의 첨언교과로 사회문화/한국지리/생활과 윤리/한국사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첫 째, 기준교과의 수업활동 중에서 장점(강점), 부각할 점, 특별함
둘 째, 기준교과의 수업활동을 부각시킬 보조교과 및 첨언교과의 활동 내용
셋 째, 기준교과와 보조교과(첨언교과)의 연계시킬 소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핵심 단어를 정리하면

교과	학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국어 I 국어 II 실용영어 II 한문 I 방과후학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문 작성 및 상호 침삭 과정/언어예절/글을 스스로 선택하여/쓰기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상황에 맞게 잘 조직 ■ 효과적인 담화 표현을 사용하여 핵심정보를 선별하는 • 2학기 영어부장으로 • 한자와 한문, 한자와 단어의 짜임 등을 잘 이해/언어생활에 필요한 어휘 구사 능력이/2학기 한문부장으로 • PASS 정기구독/외모지상주의/직접 글로 자신의 의견을
문학 영어 I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윤리 화학 I 논술 중국어 I 꿈끼탐색반 국제문화이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지를 작성하고 주제를 정리/토론학습 • 추론능력/핵심문장과 어휘/대화나 서술문에서 배운 관용표현 • (2학기)교육제도에서 교육 평등의 종류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과정 • (1학기)발표/설명하는 능력/(2학기)논리 정연하고 예리하게 분석하여 발표 • 주제발표 • (1학기)탐구활동지 작성(한자의 쓰임새-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제시) • (1학기)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서술하는 능력(글쓰기, 말하기-한자의 쓰임새, 어휘사용) ■ (2학기)중국어부장/조별 평가 ※ppt/논리적 표현(간단 명료한 문장-한자의 쓰임새, 이해쉽게, 한 단어로)
	3	

(수상경력)에서

학년	수상명	등급	수상학기
1	독서논술대회	금상	1학기
	교과성적우수	한문 I	1학기
	한자쓰기경시	금상	1학기
	교과성적우수	한문 I	2학기
2	교과성적우수	한국지리	1학기
	교과성적우수	중국어 I	2학기
3	시사상식경시	금상	1학기

- 16개의 교내상에서 교과성적우수상, 지필고사 학력장상, 선행상, 자기주도적학습개근상, 흡연예방캠페인, 스포츠클럽대회(공동) 등이 13개, 독서논술대회, 한자쓰기경시대회, 시사상식경시대회로 수상경력이 구성되어 수상경력은 부족할 수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에서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1학년	<p>자율활동 : (1학기) 부반장/교내체육대회 학급대표(줄다리기, 왕복달리기, 킨볼)</p> <p>(2학기) 학급대의원/(2학기) 학생회 운영위원 복지부장으로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2학기 교내스포츠클럽(넛볼) 학급대표/(2학기) 축제에서 설문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p> <p>진로희망 및 활동 : 초등교사/(2학기) 축제에서 외모지상주의 주제로 팀(4명) 구성하여 설문조사, 인터뷰, 보고서작성, 발표</p> <p>자율동아리 : 활동일지와 결과보고서/문집을 스스로 작성</p>
2학년	<p>자율활동 : (1학기) 학생회 운영위원 및 대의원/(2학기) 축제준비위원으로 기획하고 주관/2학기 축제의 단편영화제에 단편영화 출품대상(인기상) 수상</p> <p>동아리활동 : (창체)동아리조장으로 자체 제작 영어동화/(자율)교육동아리인 샘물 동아리회장으로</p> <p>진로희망 및 활동 : 초등교사/(2학기) 축제에서 성 소수자 주제로 팀(학급) 구성하여 조장으로 역할 분담하여 조사하고 탐구과정에서 효율적, 리더십</p> <p>봉사활동 : (1학년)장애인 복지회관/축제/지역아동센터/(2학년)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지역아동센터</p>

독서활동 상황
(1학년)한국철학에세이/강신주의 감정수업/정재승의 과학콘서트
(2학년)(1학기)교사와 학생사이/교사, 선생이되다/가르침을 생각하라/(2학기)교사역할 훈련/노인과바다/논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학년) 친구들의 부탁이나 난처함에 스스럼없이../학교 생활의 모든 규칙/축제/학생회 활동/ (2학년) 자신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학급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며 복습의 기회로, 부족한 과목은 세부적 계획표를 작성해가며/화해의 중재자/멘토역할/선생님들께 질문/장래목표가 바뀌지 않고 뚜렷하며 한 목표를 가지면 끝까지

-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자기소개서 4개 항목을 생각하면서 정리한 후 자기소개서 1번 질문항목의 초안 작성을 위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읽을 것이 없다. 모든 학생들이 하는 활동으로 교내에서는 장점(강점)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학생의 진로희망과 지원 대학에 지원하는 수준의 학생과의 차별화, 탁월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찾아야 한다. 소재는 있을 것이다.
- 국어, 사회 수업시간 발표, 토론,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에서 자료 수집에 대한 출처가 없다. 출처로는 관련도서 또는 연계도서, 포털검색은 전문가의 의견 수집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다.
- 같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정리된 자료를 활용하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얼마나 저자를 평가할 수 있는가가 어려울 것이다.
- 핵심단어(키워드)는 한문 교육의 목적, 한문(한자) 사용, 한자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 보고서 핵심 요약 정리, 발표문 한자 활용 → 1학년 1학기 수상경력 → 국어, 사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2학년 수상경력(중국어 I)로 글의 흐름으로 작성하였다.
- 흐름도를 간략히 하면
- 한문 I + 국어 + 사회교과 성적 → 국어, 사회 수업시간 자료수집 + 보고서작성 + 발표 + 토론 + 질의응답 → 교과우수상(1학년 - 한문 I) + (1학년 - 1학기)논술대회(금상) + (1학년 - 1학기)한자쓰기(금상) → 교과우수상(2학년 - 중국어 I)
- 위의 흐름도에 따라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작성에서 생각한 것으로 초안을 아래와 같이 만들어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 국어, 사회 수업시간 발표, 토론, 자료, 보고서
→ 생각을 간단명료하게 작성과 핵심 요지(요점, 주제), 발표때 보고서를 읽을 경우, 발표 내용을 듣는 경우, 질문에 답변에서 정리된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전달되었다고 해도 산만하다는 학생과 교사의 평가
→ 한자의 쓰임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문 수업에서 한자의 사용으로 보고서, 발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군더더기 없이 간단명료하게 활용하면서 학생, 교사가 자신의 생각이 전달되는 것을 인식

→ 한자 병기로 주어진 시간 내 발표, 토론 및 질문시간에 상대방이 이해가 되도록 적절히 한자 사용

→ 보고서의 양, 짧은 지면과 제한된 글자 수에도 충분히 뜻을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자 활용으로 주어진 시간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질문한 학생(교사)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었음

→ 토론과 질문도 질문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거나 산만하여 요점(요지) 파악이 안되어 의아해 하거나하는 모습이나 재요청이 없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음. 토론(질문)에 정확히 자신의 견해(생각)를 전달하여 발표, 보고서 작성을 친구를 통한 침묵하여 수업에서 주어진 시간에 명확히 전달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정확히 전달하게 되었음

→ 한자의 쓰임새 활용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1학년 2학기 중국어 선택의 자신감 가지게 되었으며 대학 공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음.

- 이제 완성된 초안이다.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교과서가 그렇듯이 국어교과서도 한자표기가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나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교과서의 내용 밑에 필기하여 시험 문제로 출제되니 교과서에 있는 문장 속의 어휘와 교과서에 필기된 어휘의 뜻을 몰라도 그냥 외워서 답을 찾아내는 식의 공부가 국어 시험공부였습니다.

우리말한자어의 어원을 몰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채 어렵짐작으로 책을 읽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읽은 책의 내용을 정리하여 독서감상문이나 수업시간 발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책을 읽을 때는 충분히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적어 놓은 글을 보면 무엇을 읽었는지 남들이 읽으면 책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친구들의 글을 봐도 그렇지만 저의 글도 남들이 보면 책을 읽다가 그만 둔 것인지 끝까지 읽었는지가 궁금해 할 정도였습니다.

과제 발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할 때 글로 옮기는데 글자수가 너무 많아 읽어보면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찾기 어렵고 정해진 분량을 훌쩍 넘겨 줄이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 두 번은 겨우 분량을 맞추어 제출하고 짧은 발표시간에 발표 내용은 두서없이 주제나 핵심이 없이 겉돌아 교실 안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수업에서 한자의 개념과 뜻을 정확히 알고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문을 배우면서 우리말한자어에 대하여 질문도 하고 국어교과서의 우리말한자어를 노트에 정리하고 영어 단어공부하듯이 매일 일정량의 한자를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국어교과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니 암기하던 것들이 이해가 되어 국어공부가 수월해 졌습니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쉽게 암기도 되니 국어수업이 기다려지고 과제 발표시간은 언제나 기다려졌습니다. 한자를 알게 되면서 언어를 압축할 수 있게 되면서 문장을 쉽고 짧게 쓸 수 있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읽는 사람이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고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과제 발표, 모둠학습, 조별 토론 때도 한자만 봐도 뜻과 음으로 단어의 뜻을 암기가 아닌 이해할 수 있어 한문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뜻을 정확히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자가 쓰기 어렵다고 기피하지만 한문공부가 국어공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친구들이 한자가 어려워 중국어공부가 힘드니 일본어를 선택할 때 저는 자신 있게 중국어를 선택하여 어려운 한문공부에 도전하였습니다.

(939자)(1,304자-띄워쓰기포함)

[위의 내용 삭제 경우 아래 내용 추가]

과제 발표를 위해 독서나 인터넷 검색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는 자신이 있었지만 글을 쓰다보면 긴 문장이 나오고, 앞 뒤가 맞지 않을 때가 많지만 되도록 짧고 쉽고 명쾌하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되는데 그러질 못하니 주어진 분량을 넘어가서 줄이는데도 큰 압박이었습니다.

(118자)(156자-띄워쓰기포함)

-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초안이며 이를 검토안을 비교한다면 학생의 초안과 검토안 중에서 학생이 결정하여 제출할 최종 자기소개서가 될 것이다. 검토안에서 초과된 글자 수를 줄여 완성한다.

-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학생 초안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저는 항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잘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즐기는 사람’이 되자는 각오를 다지며 공부에 임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자신 없는 과목, 흥미 없는 과목을 꼽으면 수학은 항상 1순위였고,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수학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저에게 매일의 수학수업은 지루하고 힘겨울 수도 있었지만 수학을 즐겨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에 시간 투자를 훨씬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꾸준한 문제 풀이를 통해 수학과 항상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정이 들 듯, 이전엔 싫어하고 피하기만 했던 수학을 의지를 통해 가까이 하니 수학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제게 하나 둘 씩 수학문제집을 들고 저를 찾아올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문제를 손쉽게 풀어 줄 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지만, 반대로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읽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설명하기까지 길게 걸리더라도 책임지고 끝까지 뚫으로써 저의 실력도 향상 시키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제 자신 또한 성장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도움을 주고,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주며 서로 상부상조하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582자)(775자-띄워쓰기포함)

•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학생 초안의 검토안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

저는 항상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마음속에 두고 잘하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즐기는 사람’이 되자는 각오를 다지며 공부에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정말 마음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공부계획을 실천하면 성취라는 결과를 얻어야 자신의 존재감이 생기고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라는 힘을 얻어 다시 노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감을 잃고 공부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해 보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못 되도 노력하는 사람은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예전부터 가장 자신 없고 흥미 없는 과목은 늘 수학과 그만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매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한 수학수업은 지루하고 힘겨웠지만 한 번 즐겨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에 시간 투자를 훨씬 많이 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꾸준한 문제 풀이를 통해 항상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람도 가까이 있으면 정이 들 듯, 이전엔 싫어하고 피하기만 했던 과목을 의지를 통해 가까이 하니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아예 수학문제집을 끼고 사는 저를 보고 친구들도 제게 하나 둘 씩 문제집을 들고 오기 시작하면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문제를 손쉽게 풀어 줄 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했지만, 반대로 문제가 어렵고, 풀기 어려운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읽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설명하기까지 길게 걸리더라도 책임지고 끝까지 풀어주면서 저의 실력도 향상되었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제 자신 또한 성장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보고 실망하여 포기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실망하지 않고 제 자신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었지만 해냈어”, “다음에도 차분하게 생각하고 풀어보는 거야”라고 노력에 대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도 시험점수를 보면 실망스럽고 더 이상 힘들게 공부해도 점수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 미리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자신을 칭찬하면서 하루하루를 깨끗하게 수학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서로 주고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각의 차이가 과목을 대하는 태도에는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958자)(1,258자-띄워쓰기포함)

⑨ 아무리 ‘우리 아이가 잘 한다고 해도 다른 아이 역시 잘 하는 아이’이고 그런 아이들 간의 경쟁 속에서 합격이 결정된다.

• 우리 아이 만큼 또는 우리 아이 보다 다른 아이가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한 분야의 두각도 좋지만 전체 분야에서 종합적 스펙의 중요성 중에서 자기소개서(추천서)를 바라봐야 한다.

- 자기소개서(추천서)는 특별한 수상실적과 활동 등의 우수성이나 차별적 요소가 부족하거나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가 어렵거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점수를 따려고 할 때 유일한 서류다.

- 점수화되어 기록되는 것 외에 유일하게 입학사정관에게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자 도구이며 면접관들이 면접 질문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대학의 평가자인 입학사정관들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분별하는 역량이 쌓였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또는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에서 간단한 몇 가지의 질문으로도 자기소개서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을뿐더러 충분히 가능성을 가진 학생으로 학교를 빛낼 인재를 확인할 수 있다.

⑩ 평가가 정밀해진 만큼 자기소개서도 정밀하게 써야 한다.

- 자기소개서 공통문항과 대학 자율문항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들은 각각 개별적인 질문들에 대한 작성을 요구하는 듯 하지만 전체를 조감해 보면 모든 질문 항목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닌 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지닌 특징은 대학에서 분명하게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⑪ 기본적으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인성관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형성된 개인적, 환경적, 사회적 노력들을 학교 내에서 활동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험으로 기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에 대한 의도는

1. 지원 학과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었는가?
2. 인성과 리더십을 지니고 있는가?
3. 삶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세부항목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질, 역량, 성장 가능성 등의 평가다.

- 지원 학과를 중심으로 어떤 성장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사고(의식)이 형성되었는가? 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인 유기성을 통해 지원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 4 가지 질문의 자기소개서는 ‘지원학과를 꿈꾸게 된 내적동기(가치관)과 구체적인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외적동기(인생관)과 이것들이 사회적인 포부로 확산(세계관)과 조직구성원간의 사회협력(인성관)을 기술하고 논리적으로 반드시 연계된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험을 어떻게 체득화했는가이다. 그래서 모

는 항목에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 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단순한 경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인성관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써야 한다.

⑫ 자기소개서 공통항목과 자율항목을 살펴보면

- 학교생활에 적응에서 학교생활과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의 경험
 - 학업(교과)과 교과외 활동(비교과) 활동에서의 경험
 - 대학 및 전공(학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결정과 구체적인 노력
 - 그 외 자신만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경험
- 의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⑬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요구하는 것은

- 일관성
- 진실성
- 사고력

에 대한 평가로 대학의 평가의도에 맞는 자기소개서(추천서)의 작성이 중요하다.

⑭ 학생부종합에서 합격은 총점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한다.

- 특정 분야 하나를 매우 잘 해서 합격하는 특정분야와 관련된 특기자전형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은 말 그래도 종합적으로 잘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하나로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교과활동에서 당연히 고루고루 잘하는 종합적인 결과에 의해 종합형 인재를 합격시킨다.
-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다른 하나를 더 추가하여 보완한다면 당연히 총점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합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와 요인이 될 것이다.

VII.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 내신성적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 중 최고의 스펙인 것은 단순한 이유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내용이 비슷한 스펙이거나 강점을 드러낼 특별함이 없는 스펙에 자기소개서를 가졌다면 내신성적이 높은 학생이 이길 수 밖에 없다. 의외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내신성적도 스펙이기 때문이다. 공부 잘하는 것도 학생에게는 장점 중에서 강점이다.
- 내신성적이 높으면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학교(교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받아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내신성적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 중에서도 강점이 있다면 합격할 수 있지만 합격 가능 확률이 높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장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다른 전형은 정량적 평가지만 대학이 요구하는 평가요소에 맞추어야 하는 정성적 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점과 단점 파악이 최우선이며 그 중에서도 강점과 약점 파악이다.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의 발전노력과 단점이나 약점의 극복노력을 결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비교과영역인 스펙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주변 사람들은 대학입학처 직원 또는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단순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활동 결과물과 장 수로 대부분 이야기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새겨들을 필요 없다. 지원 대학에서 스펙을 어떻게 평가할 지가 중요하다.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좋게 평가해 주는 대학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 ▶ 학교생활기록부의 장수가 17페이지였고 별로란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소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라인을 쓰겠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도 어렵다고 다 뜯어말렸어요. 하지만 두 대학에 당당하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강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단점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얻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강점과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이 보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 ▶ 3학년 때부터는 장점은 장점으로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 냈죠. 강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저를 알아봐준 대학이 두 곳이나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내신성적은 전형명대로 지원과 합격을 결정하는 최고의 스펙이며 면접에서의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점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도 최고의 스펙은 내신성적이다.
-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 또는 입학처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강조하는 공통 사항은 2 가지 전형요소다.
- 첫 번째는 학업요소인 내신성적이다. 두 번째는 ‘전공적합성’이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과 일치하는 학과에 맞추어 지원을 하는 것이다.
- 대학의 수시전형 설명회나 상담, 학생(학부모), 교사들의 질문에 공통적으로 내신성적을 제외한 요소 중 ‘전공적합성’은 지원과 합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대학 입시의 문외한 입장에서 알 수 있을 만큼 ‘전공적합성’과 방향이 일치하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으로 지원 학과를 상향, 하향으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고교 방문 설명회나 간담회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새겨들은 후에도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고 전년도 경쟁률, 합격 사례, 상담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방향성과 달리 학과를 조정하는 것은 수시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합격보다는 불합격의 확률을 스스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잘못된 선택의 사례를 수집하기 어렵고 사례 수도 극히 제한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대학 입시구조를 가지고 있다.
-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6회의 수시지원의 실패와 수능 실패로 생각지 않은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하거나 재수의 길로 들어서는 사례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수시지원 횟수 6회를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내신성적보다 활동내용이 부족하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정시모집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는 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고 준비해 온 것이 아니라면 지원하라고 추천하기 어렵다.
- 내신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낮다면 6회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직적인 지원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된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고 6회 모두 논술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논술전형과 학생부 종합전型的 위험도를 인지하고 같은 대학이나 학과에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

VIII. 내가 생각하는 인문계열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

• 먼저 밝히지만 내신성적 평균등급이 1점대 던, 2점대 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이상 대학가는 굉장히 힘들어졌다. 위 대학들은 그 위 상위대학보다 내신성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능성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성적에 기대어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여기에 맞추어 선발한다. 내신성적의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일반고에서 합격은 보장받을 수 없다.

▶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과목을 다 평가한다. 학년별, 학기별, 과목별, 과목조합별로 등급, 평균등급, 표준점수(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로 시험 난이도, 학생 수준, 향상과 하락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 진로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의 대부분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교과 100%는 평균등급, 그 외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한다. 그래도 정성평가니까 심하게 낮지만 않으면 된다.

▶ 과학과목은 8등급도 있는데 합격했어요. 제2외국어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비 주요과목은 솔직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저는 교육감배나 생활체육, 풋살, 더베이스까지 나갔습니다.

▶ 저는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기는 했지만 입시를 치르면서 정보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시 선발 비율이 줄어드는데도 정시 공부법은 많이 나오는데 수시 전략 등의 정보 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정시로 바꾸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고 3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봐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존재를 알았던 순간부터 원해왔던 대학의 학과가 정시 모집을 작년부터 갑자기 안 해 버렸습니다.

▶ 정보가 많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이 글을 읽는 학생(학부모)들은 그 고통을 조금 덜었으면 하고 말 그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느낀 것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할까?

▶ 가장 먼저 의문을 가진 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왜 뽑느냐?' 였다. 보수적인 우리 대학 사회에서 대학이 공정성 파괴, 금수저전형, 안개(깜깜이)전형이라는 논란에 휩싸여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대학의 명성에 손해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도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왜 일까?

▶ 정시 원서 접수기간이 되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단골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종류의 글이 있다. 바로 이 말이다. 바로 이 질문일 것이다.

'○○대학교 인기학과 vs □□대학교 비인기 하위학과 어디로 갈까요?'

▶ 질문 아래에 적힌 수많은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복수전공(이중전공)이나 전과를 노리고 높은 대학의 비인기 하위학과로 들어가라는 글로 가득 채워져 있다. 높은 대학이나 일반대학이나 인기학과는 역시나 우수한 인재가 몰릴지 모르나 비인기학과는 간판을 달기위한 수단으로 전략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과연 원하지 않는 학과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 하기 쉬울까?

▶ 원하지 않는 전공의 학문을 몇 년 더 공부하면서 학점관리까지 제대로 하고 복수전공(이중전공)이나 전과하는 것은 또 다시 '죽은 공부'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과나 복수전공(이중전공)은 쉬운 게 아니다. 재수를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전공적합성과 발전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 수시모집의 선발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지금처럼 매우 커진 것은 정부와 교육부의 영향도 있다. 그런데 비중을 늘릴 때 차라리 수능(정시모집)과 그나마 유사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지 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을까?

▶ 내가 이렇게 수능 공부해서 나중에 써먹을 날이 올까?, 아니야. 나는 수능이 죽은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막연하게 왜 해야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틀에 갇힌 생각을 강요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냥 대학가기 위해 했을 뿐이야.

▶ 학생은 대부분 위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나 그냥 해야 되지 않나,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어떤 학생들은 시키니까 해야지 등 수능 공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 학생이라면 수능성적 상위권 학생 중에서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

• 왜, 수능 공부를 시키지, 대학에 가기위한 방편의 도구라는 편견이다. 대학 입시를 치루어 본 학생(학부모)들 중 상위의 일부분과 사교육에 계시는 일부만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자도 수능의 시험범위를 교과서대로 한정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면에서는 부족하고 교과서는 3월과 동시에 폐기되고 EBS교재로 채워버리는 3학년 교실을 보면 수업 활동을 획일화 시켰다.

• 수능을 딱히 죽은 공부라고 하기는 어렵다. 교과서는 기본개념, 문제집을 대체한 수능은 기본개념, 응용개념, 분석개념의 낮은 단계로 수능이 대학가는 도구로 전략한 선입견(편견)이 강하지 않은가 싶다. 수능 출제범위가 교과서대로 들어오면서 수능을 죽은 공부라고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 한양대 입학처장은 "여러분은 수능이라는 시험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사정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공부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많은 학생들이 뿐 아니라 본인 또한 경험자이고 대부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이 좋은 공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 이는 내신성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대학에서는 수능에 의한 정시모집과 더불어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을 줄이는 이유는 대학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서울의 상위 주요 10개 대학과 이화여대에서 순수하게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한양대와 서울시립대 외에는 없을 것이다. 실제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내신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대학은 없다. 비교과를 포함하거나 형식적이던 아니던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신설한 전형으로 중앙대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선발하긴 하지만 30% 비교과 점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 뿐 만아니라 학교 내에서 활동, 전공 적합성, 발전가능성 등을 같이 볼 수 있다. 내신성적은 조금 떨어져도 꾸준히 전공 관련 역량을 키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추천서, 활동역량보고서, 학교소개자료)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 대학은 학생들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신입생 선발계획을 바꾸고 선발인원을 증감하고 전형방법, 전형요소의 비율을 바꾼다. 선발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수지도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의 재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여 선발되는 고교와 학생 수가 증감되기도 한다.

• 그런데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은 대학 측에서도 이제는 선발된 학생들의 수준에 만족을 했다는 것이 아닐까?. 일부 학생에 대한 수준적인 측면에서 선발 방법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문제점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입학과 졸업의 학과가 일치하는 전공적합성 측면으로 볼 경우 매우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다.

• 끝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말이 있다. 일부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약간의 의문점이 들기도 한다. 자기소개서를 쓰던 면접을 보던 그냥 입학사정관과 교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돈이 들까?

• 무엇이던 자본이 있으면 유리하고 편하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학생(학부모), 들이 자본의 도움 없이 이를 극복해 나가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습관화시키고 필요한 도움을 찾아 헤맨다면 학생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요약하자면 대학은 수능의 문제점을 느꼈고 전공적합성이 높고 발전가능성을 가지면서도 현재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2. 그럼, 어떻게 뽑는가?

-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많은 학생(학부모, 교사)들이 아직도 잘 모른다가 보다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내신성적으로 수시상담을 하면 된다는, 학생(학부모)도 내신성적으로 대학(학과)에 갈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하다가 촉박한 시점에서 준비하려니 입시요강의 가독성이 낮고 서류 준비가 귀찮거나 힘들겠다는 느낌을 가지지만 교실에서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볼까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누어진 분위기가 두 달은 간다.

- 합격과 불합격에 의문을 말하는 주변에 의해서 '로또' 전형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내신성적이 아닌가?', '붙을 애가 아닌데 붙었다.' '떨어질 수 없는데 떨어졌다.? 등등의 의문들이다. 정말로 '로또'전형일 까? 우선 어떻게 뽑는 지부터 알아봐야 한다.

한양대의 사례를 들어보면

- 특히 내신성적이 블라인드화 된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다.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영재고,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가 좋아한다. 특정지역을 좋아한다. 등 다양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한 한양대 입학처장의 반응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욕을 먹는다. 우리는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언제나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군데에서 욕을 먹는다면 그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면 될테지만 사방 여러 군데에서 욕이 날라오니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다."

- ▶ 실제로 한양대는 어디 대학이든 수시모집 박람회(설명회) 가면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우리대학의 인재상은 이렇다. 이러 이러한 점에 강점이 있으면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동네방네 알리고 다닌다.

- ▶ 심지어는 내신성적보다는 종합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는 곳도 있다. 다른 활동으로 역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려주고 모의 면접과 모의 서류평가를 해주는 곳도 있다.

- ▶ 한양대는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까지 해준다. 한양대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다른 대학들도 공개해 놓고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안내서)도 있다.

- 하지만 수시모집 박람회에 온 학생(학부모, 교사)들은 이 정보를 다 얻고도 거의 다 무시한 채 입학처 직원과 입학사정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

"제 내신성적이 이렇게입니다. 우리 애 내신성적이 이렇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합격 가능합니까?"

‘답답하지 않을까요?’ 내신성적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고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줬는데 내신성적만으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판단해 달라니. 그렇게 물어보면 해줄 수 있는 답은 없을 것이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저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가요?"

이 질문으로 얻어 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을 것이다.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인의 발전의 발판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 더 어렵다.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과 강점을 잘 아는 학생을 대학에서도 선호한다.

▶ 우연일지도 모르지만 성적 관련 질문을 던졌던 경희대 부스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반면, 이 질문을 던졌던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 부스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스스로에 대해 고민해 본 친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 위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공적합성이 높고 발전가능성을 가지면서도 현재 그걸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시작점은 성적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장점 중 강점을 잘 아는 학생을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방법이면서 평가방법이다. 많은 학생(학부모, 교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기소개서는 그 자체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나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을 담아내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다.

▶ 많은 친구들의 면접 준비를 도와주었고, 다양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어봤습니다. 떨어진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흐름이 아예 일치하지 않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그냥 생각없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력과 표현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 저 한테도 보이는 사실을 과연 입학사정관(위촉입학사정관)들이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냥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기만 했구나'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구나' 라는 평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 장·단점과 강점(약점)을 알고 발전시키거나 극복할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재상과는 맞지 않는거죠. 이런 친구들은 스펙이나 성적이 너무 뛰어나지 않는 이상 보통 떨어집니다.

의외로 1점대의 좋은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겪는 상황이에요. 만약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의 단점(약점)을 찾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비교과에서 절대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여기에 이어서 성적을 '정성평가' 합니다. 정성평가란 등급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표준편차와 평균, 이수자 수, 지원자의 원점수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교의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죠. 이 데이터들을 해당 학생들 중에서 그 등급 내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더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보조적인 데이터를 얻어 과목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죠. 그렇기에 교과부분의 평가에서 등급차이가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정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컨설팅 업체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답을 왜 남에게 물어보나요.

▶ 대학이 뽑고자 하는 인재상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수시모집박람회에 가도 알 수 있고 정시 모집요강에서 과목별 반영 비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이라면 한 번 짚은 자신에 대해 돌아보면서 장·단점과 강점과 약점을 찾고 장점과 강점의 발전을 위해 뭘 하는가, 단점이나 약점의 극복을 위해 뭘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학생 자신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9년간의 타성에 젖은 학교생활을 해 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내대회, 소논문, 보고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며 학교시험, 모의고사 시험공부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이것을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비교과활동은 남의 일일 뿐이다. 학교에서 일부 학생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거나 상위권 대학들이 가장 많이 선발하니 학교에서 될 성 싶은 학생에게 몰아준다는 소문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3학년이 되어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상황과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막연한 직업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한다. 모의고사 성적도 안 되고 내신성적도 안되서 합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마지막 출구를 찾기 시작한다.

- 그러므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수시모집 지원은 내신성적으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기 때문에 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만 돌아올 뿐이다. 교사들은 학생 사이에서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한 걱정으로 형식적인 도움을 주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마라는 식이다. 자기소개서 봐주는 것을 귀찮아하는 교사들로 인해 교사에 대한 인식과 학교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

-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학생(학부모)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 홈페이지, 선배, 교사, 설명회, 박람회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학교 테두리 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 자신의 대한 인생을 학교(교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냥 기다려서는 안된다.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나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 교사의 도움이 없을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컨설팅업체를 찾아 도움을 받게 되고 이는 사교육비 지출과 가장 힘든 전형으로 인식되며 대부분의 학생(학부모)들은 그런 생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교사들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과 자기소개서(추천서, 활동역량평가서 등)의 검토(첨삭)의 부담보다도 있지는 학생(학부모)의 요청에 거절할 경우 학생(학부모)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서 형식적인 첨삭(검토)으로 학생(학부모)의 불만을 없애지 못하여 전체 학교(교사)가 불신을 받고 있다. 첨삭(검토)를 해 준다고 해도 학생(학부

모)의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17개 시도교육청의 대입상담활동은 짧은 시간 내 상담으로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받아볼 만하다. 대학박람회의 대학 부스에 상담 신청하여 직접 대학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원하려는 대학이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지원과 상관없이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모든 평가내용에 대한 준비를 위해 1년간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천하고 학교 내, 학교 밖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과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 모의고사 성적, 내신성적, 비교과활동의 3 가지 영역에서 모두를 다 잘할 수 없다면 학생 자신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학할 대학의 학과와 연관된 전공적합성을 중심으로 두고 교내대회에 수상경력과 상관없이 활동해야 한다.

- 2년 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에 변화가 생겼다. 학교생활기록부의 8.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가 매우 중요해졌다. 수업활동의 개선이다.

- 그렇다면 내신성적이 낮은 학생도 비교과활동에서 수상경력은 없어도 바로 수업시간 활동에서 충분히 내신성적을 만회하여 불합격을 합격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 2년 전부터 나타난 대학 합격 사례에서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우수한 상위 대학이 아니라도 중위권 대학이나 정시전형과 수시의 학생부 교과전형, 적성고사전형에 지원할 수 없어도 학생 자신의 수준에서 지원하고 합격하여 진학하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매우 높여 놓았으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모든 대학 입시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는 대학에서 모두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자료와 정보에 차이를 두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똑같은 자료와 정보다.

- 또한 대학에서는 입학처에서 입학처직원과 입학사정관들을 활용하여 대학에서 상담해 주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시박람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박람회에서 대학들이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상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행사 일정을 꼼꼼히 챙겨 학교(교사)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하거나 현장에 가서 상담 신청을 하여 상담을 받으려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한다.

- 학생(학부모)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대학입시에서 자신의 희망과 목표를 이루어 나간 내용을 소개한다.

- 자기주도적인 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습관화 시킨 학생의 사례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이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다니는 학생도 이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IX. 나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학생부 종합전형은 12년간의 학교생활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겪었고 당연히 여겼던 정량 평가의 영역이 아닌 정성평가(가치평가)의 영역이다. 12년간의 학교생활 평가에서 정성평가 영역에 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추구하는 평가와는 사뭇 다르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서는 모든 학생들에 적용된다. 관리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한 대학 선택과 서류 준비와 면접준비에 대한 것들은 일반고에서는 학업역량이 우수한 일부 학생과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고, 자율형사립고, 평준 또는 비평준화 지역의 수능성적 기준으로 우수한 학업역량을 갖춘 학생들로 채워진 고등학교, 그렇지 못한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다.

첫 번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자기주도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한 내신성적으로도 역전이 가능하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 사례에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내신성적으로 합격하는 경우를 특이사례로 무시하기 보다는 본인이 그 특이사례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 1학년 학교생활을 후회하거나 2학년 학교생활을 후회하기보다는 3학년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은 누구나 높이 사는 장점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을 때 대학에 지원도 하고 합격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한 단계 성장 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 제 고등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활동을 챙겨주는 편이 아닙니다. 수시박람회 1대1상담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아보면서 알았네요. 그리고 대회도 많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대회가 줄어듭니다. 심지어 3학년 때는 대회 딱 4개했네요.

▶ 비교과도 챙겨주지 않았는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쓰이기도 힘들었습니다. 보통 1, 2등급 친구들에게만 써주는데 그마저도 2등급 친구들에게는 잘 써주지 않았어요. 제 수행평가 수행 능력이 정말 형편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도 등급이 1~2등급은 내려가더군요. 그래서 1학년 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그냥 망쳤습니다. 한 페이지정도 밖에 안되었던 것 같네요.

▶ 2학년 때부터는 등급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던 수행평가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고 등급도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어느 정도는 자동으로 따라오더군요.

▶ 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보다는 확실한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학년 때 소논문 쓰기대회에서 상을 받았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했었고, 논문 쓰는 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참가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고 좋은 결과까지 얻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7~8페이지 정도인 것도 있었고 1~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도 있었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논문

- (1) 게임이론을 통한 남북한 관계에 대한 고찰
- (2) 한국교육의 문제점-감정이 결여되어가는 한국

-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격차로 준비를 못했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논술 또는 정시를 대비하는 경우, 내신성적이 우수하거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준비, 전형방법에서 학생(학부모), 교사 등에 의해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료와 정보의 차이뿐 아니라 학생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방향성과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다를 것이다.

- 내신성적이 평준 또는 비평준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평준 또는 비평준화 우수 일반고(수능)에 따라 내신성적의 등급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원학과와 전공적합성을 기준으로 3등급이내 또는 내외 그리고 연관성이 없는 과목은 그 보다 낮다고 해도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원할 때 대학을 직접 방문(전화)하거나 대입박람회 대학 부스를 찾아 상담해 보고 결정하면 된다.

-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과 얻는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낮은 내신성적은 교내 대회, 수업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에서 스펙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래서 생겨난 말이 최고의 스펙이 내신성적이라고 한다.

- 환경에 순응하거나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활동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활동기회를 주도록 만들어가는 자기주도적 사고로 변신해야 한다.

- 소논문이나 보고서의 주제 선정과 작성은 본인 스스로 또는 과목선생님의 권유, 수업시간의 과제 발표 등을 활용하여 교과 관련 내용이나 배운 내용에 대한 심화과정을 포함하여 사

회, 경제적 이슈 관련 또는 그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자유주제를 참고로 하고 작성된 보고서를 굳이 수업시간이나 교내대회에 출전하였지만 수상하지 못하거나 교내대회에 출전하지 않아도 과목선생님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해 달라고 부탁한다.

- 소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시기는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집중하여 내용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으며 진로와 전공적합성을 생각하여 교과관련 내용이나 교과 심화내용, 사회이슈나 경제 이슈를 작성하여 과목선생님께 제출하여 검토를 의뢰하거나 학년과 상관없이 배운 내용에 대한 사회, 경제 이슈도 해당 교과의 단원과 연계시켜 작성하면 된다.

- 3학년에서 수능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보다는 영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할애하여 작성해도 된다.

▶ 보고서

- (1) 브렉시트의 원인과 나아가야할 방향
- (2)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고찰
- (3) 일본과 미국 관세 협약비교를 통한 20세기 동아시아 외교 분석
- (4) 판례 분석을 통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5)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환율조작국지정, 반 히스패닉정책
- (6) 부의 분배문제의 역사와 한국의 부의 분배의 문제점
- (7) 최소요구치 이론을 통해 분석한 전통시장과 먹자골목의 유사점
- (8) 인구감소가 실업률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1학년 때 한 페이지에 불과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2학년 때는 1학년의 두 배가 되었고 3학년 1학기에서는 2학년 전체와 양과 질이 비슷하거나 우수해질 정도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는 몰랐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결심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 동아리 활동은 원하는 정규동아리(자율동아리)에 들었던 들지 못했던 스스로 원칙을 세워 정규동아리는 축구동아리, 밴드부같은 예체능활동과 교과관련 활동은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정하는 것도 좋다. 2학년 때까지는 이 원칙이 가능했지만 3학년 때는 수능대비로 예체능 동아리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3학년 자체적인 정규동아리에 배정되어 자연스레 아니 강제적으로 자율동아리를 하게 되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자율동아리로 학술동아리인 경제동아리, 토론동아리, 또래학습멘토링 등의 4개에서 활동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동아리활동 또한 원칙이었다.

▶ 앞으로 자율동아리가 폐지되거나 활동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못하면 정규동아리에 들거나 수업활동, 독서활동 등으로 채워야 한다.

▶ 특이한 활동으로는 제가 학생회와 축구부 둘다 소속되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체육대회이 외에도 축구대회했던 게 기억나서 없었던 교내대회를 만들어서 개최했던 게 있네요. 나머지

동아리는 그냥 흔히들 하는 평범하게 활동하는 동아리였습니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면에서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공부보다는 자유롭게 탐구하는 모습이 못 미더울 법도 한데 담임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오히려 좋게 봐주시더군요. 그래서 대체로 좋게 적었습니다. 또 제가 수학을 잘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좋아하셔서 이것도 좋게 적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행동을 해왔는데 좋게 봐주시는 분을 만나서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은 축에 속합니다.

▶ 봉사활동은 통합 200시간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주로 요양원이나 사랑의 식당이라고 하는 무료급식소에서 했습니다.

▶ 그럼에도 학교생활기록부 장수는 17쪽밖에 안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 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볼 수 있었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학교생활기록부였던 것 같네요.

▶ 학생들이 합격과 불합격의 사례로 꼽는 일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장수를 자랑삼아 올리는데 이는 자신이 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합격의 하나의 평가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장수가 일반적인 학생보다 조금 많은데도 합격한 경우보다는 불합격한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장수가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과 결과로 불필요한 문장들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득 채워 장수가 많은 것에 만족하는 우매한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학교생활기록부 장수에 너무 목매달지 말았으면 한다. 의미 없는 10개의 활동보다 진실된 1개의 활동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한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일단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점과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중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활동내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한 내용들이 너무 없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이 적혀있는 학생들도 이런 활동들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힘들기도 하다. 결과가 좋은 것들이 많거나 없어도 고민꺼리다.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낼 수 없다면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이다.

•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 대해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 자칫 학교생활기록부의 많은 활동 내용들이 있는데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불합격한 사례를 보면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의 장수와 자랑거리 말고는 어떠한 것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작정 학교생활에서 모든 활동에 참가하고 결과물을 얻는 것이 학교생활을 가장 잘한 학생으로 대부분 느끼고 있다. 많은 활동들에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장점(강점, 특별함)을 드러내지 못했거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방향이 달랐던 때문이다.

-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들과 어울려 방향성이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보이는 학생의 역량이나 강점과 자신이 생각하는 강점은 동일해야 하지만 자기소개서에 다른 역량이나 강점을 소개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

- 이런 자기소개서를 많은 학생들이 작성하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신이 이만큼 탁월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자랑일 뿐 지원학과와 전공적합성에 맞추었다고 하지만 그냥 수상실적을 소개한 것이다.

- 자신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해석되거나 학교에서 시키는 활동을 수동적이거나 무조건적으로 많은 활동과 좋은 결과가 많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학생(학부모, 교사)의 판단일 뿐 대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신경썼던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이 낮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건가? (단점)
2. 탐구활동을 어떻게 부각할건가? (장점)
3. 어떻게 써야지 읽고 싶을까? (글의 구성)

▶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얼마나 자세히 분석했는가를 보여준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활동 내용에 대하여 과거를 회상해 보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 사실 성적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한 것이거든요. 수행평가를 준비했고 고 3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랑 등급은 상승했지만 수능과목으로 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한국지리와 한국사가 언제나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4등급, 특히 한국사는 5등급까지 내려갔으니까요.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 전체 평균등급은 3.10등급 → 2.45등급 → 2.27등급의 성적 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래도 국어, 영어, 사회문화, 법과정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즈음부터 영어는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고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어도 내신 1등급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사회문화, 법과정치는 워낙 1등급 수가 적다보니 1등급을 맞아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근소하게 2등급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향상을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쓰기로 했죠.

▶ 참고로 저도 1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 장수는 4 쪽이었고 3년 통합해도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내신 안 버리고 계속 올리셔서 3학년 때 1점대후반으로 만들면 성적으로 큰 불이익은 안 받아요. 괜찮아요. 꿈은 계속 변 한다는걸 대학도 알고 있어요. 2학년 초반까지 진로 찾고 관련 활동하셔도 늦지 않아요.

▶ 건국대 입학 사정관은 결국에는 어떤 성적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내신부분은 아무래도 고 3때 내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수행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재로 자기소개서를 썼고 1번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

▶ 탐구활동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성적보다 더 쉬웠습니다. 당연히 제가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던 계기가 된 게임이론 소논문 이야기를 썼고 그렇게 2 번 자기소개서의 한 소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 소재를 찾는 건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마지막인 '어떻게 써야 읽고 싶을까?' 였습니다. 솔직히 그 많은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다 정확히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로잡을 무언가가 필요했죠,

▶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신경 쓴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괄식

2. 내용을 축약한 말을 생각해보기

이렇게 쓴다면 확실히 제 뜻이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정말 원했던 대학에서 이를 알아봐주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쓴다면 분명 자신만의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면접

▶ 처음에는 면접학원 다닐까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 내 이야기하는데 돈이 들면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군다나 사탕 발린 말로 저를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했던 것은 담백하고 진실 되게 말하기였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각오를 했을 정도였죠.

▶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서는 면접 질문을 무료로 만들어서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곳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돌발질문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 어느 정도 질문에 대한 생각이 잡혔으니 면접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제가 면접을 보는 시기가 지원한 두 개 대학 모두 수능 전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가 없었어요.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 첫 모의면접은 누구나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두 번째 모의면접에서는 그런

실수가 하기 싫더군요. 두 번째 면접 전까지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 효과를 본 덕분인지 두 번째 면접에서 호평을 받았고 이대로만 하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 면접 전날은 정말 아버지께 감사했던 날입니다. 몇 시간 동안 제 면접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제 태도, 답변 등 모든 것을 도와주셨죠. 덕분에 전날에 다시 한번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맘 편히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긴장 하나도 안했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이 말하고 왔네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하고 온 느낌이었고 정말 행복했어요.

▶ 면접이라고 너무 부담 가지지마세요. 그저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뿐입니다. 거짓 말을 섞으려 하는 순간 오히려 망치게 될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대학에서도 알아줄 겁니다. 이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를 합격시킨 것일 테니까요.

X.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영역 및 과목별 출제범위

구분	2020 수능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화법과작문 문학 독서와문법	화법과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매체 중 언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1) :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수학 (가)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Ⅰ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추가) 확률과통계 미적분	공통 : 수학Ⅰ, 수학Ⅱ 선택(1) :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수학 (나)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과학 탐구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선택(택2) 계열구분없이 선택 사회(9과목) 과학Ⅰ(4과목) 과학Ⅱ(4과목)
사회 탐구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어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제2외국 어/한문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EBS 연계	70%	70%	50% (간접연계)

2020학년도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

영역 \ 구분		문항 수	문항유형	배점		시간	출제범위(선택 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수학	가형	30	1~21번(5지선다형) 22~30번(단답형)	2,3,4	100점	100분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17) 읽기(28)	2,3	100점	70분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
탐구	사회 탐구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1) 60분(2)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탐구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1) 60분(2)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직업 탐구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1) 60분(2)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제2외국어/ 한문		30	5지선다형	1,2	50점	40분(1)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XI.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양식(2019년 고등학교 1학년)

순	항목	현행	개선
1	인적사항	•학생 정보, 가족상황(부모 성명,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과 통합 •부모/가족변동/특기사항 삭제
2	학적사항	•졸업 연월일, 학교명, 검정고시 합격 정보 등	•인적사항과 통합
3	출결상황	•질병·무단·기타	•질병·미인정·기타
4	수상경력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 입력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 제한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대입자료로 제공	•대입자료로 미제공
6	진로희망사항	•진로희망, 희망사유 입력	•항목 삭제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특기사항에 기재(대입 미제공)
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봉사 활동	•특기사항은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란 기재 가능
		동아리 활동	•가입제한은 두지 않되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제한(학년당 1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 사항(동아리명, 동아리 소개)만 기재
			•(소논문) 동아리, 교과세특란에 (논문명, 참여시간, 참여인원)기재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단체, 학교밖 청소년단체 활동 모두 기재 (단체명, 활동내용))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구체적 활동내용(포지션, 대회출전 경력, 역할, 특성 등) 기재
		진로 활동	•(교육과정에 편성된 청소년단체) 단체명, 활동내용 모두 기재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 단체명만 기재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기재분량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내 : 개인특성 중심 ※ 정규교육과정 외 : 클럽명(시간)
8	교과학습 발달상황	•진로 관련 활동 및 상담내용 등 기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 기재 추가(대입자료로 미제공)
		•특기사항 기재분량 : 3,000자	•특기사항 기재분량 축소: 1,700자
9	독서활동상황	•NEIS 활용 전산 기재·관리 원칙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기재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교과세특)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기재	•현행 유지
9	독서활동상황	•제목, 저자만 입력	•현행 유지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1,000자	•기재분량 축소: 500자
		•누가기록 나이스에서 관리	•누가기록 기재·관리 방법 시도 위임

학교생활기록부 I, 학교생활기록부 II의 양식

학 교 생 활 기 록 부

졸업대장번호					
학 년	구 분	학 과	반	번호	담임 성명
1					
2					
3					

전공과정	비 고		
학 년	1학기	2학기	비 고
1			
2			
3			

1. 인적·학적사항

학생정보	성명		성별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적사항	2005년 월 일	중학교 졸업				
	2005년03 월 02일	서울 고등학교 제 1학년 입학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전·편입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전·편입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전·편입				
	년 월 일	고등학교 제 학년 졸업				
특기사항						

2. 출결상황

학 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														
3														

3. 수상경력

학년 (학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교내상	1학기					
	2학기					
교외상	1학기					
	2학기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 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학년	학기	세분류	능력단위 (능력단위코드)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	비고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 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 역	시 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2			
3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6.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2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 자수)	석차 등급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단위수	성취도	단위수	성취도	
이수단위 합계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일반교과(군)의 성취도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체육, 예술(음악, 미술) 교과(군)의 성취도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일반교과별 석차등급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 이하
2등급	4% 초과 ~ 11% 이하
3등급	11% 초과 ~ 23% 이하
4등급	23% 초과 ~ 40% 이하
5등급	40% 초과 ~ 60% 이하
6등급	60% 초과 ~ 77% 이하
7등급	77% 초과 ~ 89% 이하
8등급	89% 초과 ~ 96% 이하
9등급	96% 초과 ~ 100% 이하

7.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활동 상황
		(1학기)
		(2학기)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 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	
3	

저자

김동욱

대입전략 카페 (운영자)
고교설명회(학생, 학부모, 교사)
고교 교사연수 및 간담회
대학 입학사정관 연수 및 간담회
11개 대학 정시전형 분석 책자
재학생을 위한 책자(2013, 2014)
진로설계와 창의체험활동(김동욱외3명)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2017 문고판)
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2018 문고판)
정시 결과 분석(원고)
수시전형 상담 활동
자기소개서 첨삭 활동
정시전형 상담 활동

2019학생부를 담은 자기소개서(수정판)

발행일 : 2019 4월 15일 발행

발행인 : 김동욱

발행처 : 대입전략

주 소 : <http://cafe.daum.net/admissions>

전 화 : 010-2877-6676(dukim@hanmail.net)

〈비매품〉

대입전략 <http://cafe.daum.net/admissions>

(뒷 표지 안쪽면)

(뒷 표지 겉면)